

존 웨슬리 회심 269주년 예배자료집

웨슬리회심주일(5.20)~성령강림주일(5.27)



존 웨슬리(1703~1791)

“메도디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의 조직이 설령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운 것은, 단지 능력 없는 형식적인 종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정녕 두려운 것은,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욕망과 권력으로 유지되고 성장하여

오히려 정의와 사랑과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경건한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메도디스트운동도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감독회장 신 경 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온 감리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회심 269주년을 맞았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의 회심사건은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감리교인의 신앙내용과 삶의 방식은 영국사회를 아래로부터 변화시켰고, 지금 전 세계 7천만 감리교인들의 신앙전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기독교 영적대각성 100주년의 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영적각성의 결과로 생겨난 회심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1903년 남감리회 하디 선교사의 회심을 통해 한국 감리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각인시켰고, 크고 작은 변화된 삶의 모습은 우리 감리교회의 영적 기반이요, 건강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회가 영적각성에서 출발한 교회였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안에서 제2의 회심, 제3의 갱신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감리교회의 소중한 신앙이 단지 전통의 되풀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는 내적 에너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럽게도 오늘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실망의 그늘을 안겨 주었고, 세상을 향해 희망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도와 교회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는 그 심각함이 더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업이 침체된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청지기 된 우리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7회 총회는 교회 부흥과 섬김의 실천을 위한 ‘희망프로젝트’를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신앙운동이며, 세상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복음운동입니다. 단지 영적

대각성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서 새롭게 하기 위한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몸짓이며 합성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이를 요약하는 한 단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결과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들(Faithful Members)’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감리교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학을 요약하면 ‘의인과 성화’입니다. 즉 감리교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얻은 구원’ (롬 3:24)과 ‘성장하는 믿음’ (벧전 1:15)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생활 속에서 닮아가는 ‘성화’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감리교인의 신실함입니다.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거 하였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믿음(信)과 삶(實)’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기 감리교회의 특징은 “칭의, 성화, 일주일에 일페니”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며,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감리교인은 ‘세속 속의 성자’로 불려졌습니다. 메도디스트(methodist)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하고, 내적인 고백과 외적인 증거로 삼는 것은 우리 역시 존 웨슬리처럼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과 사회, 세계와 세상을 향해 강력한 희망을 제시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낸〈존 웨슬리 회심 269주년 자료집〉이 모든 감리교회에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말씀 재료로 복되게 쓰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감리교인이 존 웨슬리의 영성으로 훈련받으며, 모든 감리교회가 회심의 신앙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회심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8일 동안 나라 안팎의 온 감리교회가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사랑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묶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자료집 사용을 위한 안내

1. 이 자료집은 영적대각성 100주년과 존 웨슬리 회심 269주년을 맞아 모든 감리교회가 하나의 말씀으로 일치된 모습을 증거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 이 책에서 제시한 '8일의 영성'은 올해 존 웨슬리회심주일(5월20일)부터 성령강림주일(5월27일)까지 8일 간의 말씀 및 영성자료를 의미합니다.
3. 성경에서 8일은 매우 뜻 깊습니다. 온 감리교회가 8일 동안 영적각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열도록 합니다.
 - 1)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 후 첫날”(눅 24:1) 즉 제8일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 2) 아기 예수는 출생 후 “할례 할 팔일”(눅 2:21)에 성전에서 결례예식을 행하였습니다.
 - 3) 구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레 23:5-6), ‘초막절’(레 23:36)은 8일 동안 계속된 축절이었습니다.
 - 4)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눅 9:20)과 변화산 초막 이야기(눅 9:33)는 “팔일쯤” 간격을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4. 이러한 의미를 살려, 웨슬리회심주일에 ‘감리교회의 세 가지 약속’ 또는 교회 형편에 맞게 작성한 ‘언약갱신’이나 ‘비전선언문’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5. 자료집 1부에는 8일 동안 사용할 말씀자료가 있습니다.
 - 1) 존 웨슬리 회심주간 설교문 2편
 - 2) 성령강림주간 설교문 2편
 - 3) 두 주일 사이 8일 동안 사용할 영적각성운동 말씀자료 8일치
6. 자료집 2부에는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훈련하고, 활용할 자료가 있습니다.
 - 1) ‘부흥’을 주제로 한 성경공부 3편(대부흥운동, 존 웨슬리 회심, 오순절성령강림)
 - 2) 교회에서 활용가능한 성경통독 성회 자료
 - 3) 영적대각성 회개문 60가지
 - 4) 영적독서운동 – “존 웨슬리, 한권의 사람 · 만권의 사람”
7. 자료집 3부에는 감리교회가 함께 할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고백과 실천이 담겨있습니다.
 - 1) ‘웨슬리 영성이란 무엇인가?’
 - 2) 존 웨슬리 영성프로그램 2가지(경건생활을 위한 자기 성찰, 한 주일을 위한 기도문)
 - 3) 신실한 사람들, 감리교회의 세 가지 약속(선언용)
 - 4) 영적각성운동 실천사례(중부연회, 고양지방)

* 모든자료는 www.kmc.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글 _	2
자료집 안내 _	4

1부. 8일간 말씀자료

존 웨슬리 회심주간 설교문 _	8
성령강림주간 설교문 _	16
영적각성운동 8일간 예배와 말씀 _	26

2부. 훈련용 자료모음

‘부흥’ 성경공부 _	46
성경통독 성회 자료 _	61
영적대각성 회개문 _	68
영적독서운동 _	75

3부. “신실한 사람들”의 고백과 실천

‘웨슬리 영성이란 무엇인가?’ _	80
존 웨슬리 영성프로그램 _	92
신실한 사람들, 감리교회의 세 가지 약속 _	105
영적각성운동 실천사례 _	109

1부

8일간 말씀자료

존 웨슬리 회심주간 설교문 2편

성령강림주간 설교문 2편

영적각성운동 8일간 예배와 말씀 자료

깨어 있는 삶

(로마서 13:11-14)

“나라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을 감리교 신앙운동의 목표로 삼았던 웨슬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적 성결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나라와 교회의 개혁은 오직 성경적 성결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감리교인 하나 하나가 이 세상에서 성경적 성결의 삶을 살아나갈 때 교회는 개혁되고 나아가서 나라 전체도 개혁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손의 무기가 아니라 개인의 성결한 삶이라고 하겠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준 가르침, 즉 ‘깨어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은 곧 성결한 삶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며,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버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성경적 성결의 삶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절대적 소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들의 순전한 생활 모습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이제는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 가십시오/아가페 쉬운 성경)”고 했다.

올 해 한국 교회의 주요 관심은 단연 영적 대각성이다. 교회 내외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1백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불길을 다시 한 번 지퍼 흐름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감리교회도 ‘Beyond 1907’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일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1백년 전 대부흥운동이 철저한 회개운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

철저한 회개 운동, 그것은 성경적 성결의 삶을 살라는 웨슬리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바울의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고민이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말씀 속에, 교회 안에,

감리교회의 가르침 안에...

그것은 한 마디로 교인 하나 하나가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 부흥도 1백년 전의 교회 부흥과 다르지 않다. 즉 나로부터 시작하는 철저한 회개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많은 숫자에 있지 않다. 그것은 1900년 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크고 화려한 교회의 외형에도 있지 않다. 교회의 많은 공간을 사회에 오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기획하고 제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에 호감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며,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모든 성도들, 교회들의 영적 대각성, 곧 영적으로 깨어 일어남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1.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 (11절)라고 했다. 잔다는 것은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을 말한다. 잠을 잘 때 사람들은 외부의 변화에 무감각해지게 된다. 오로지 자신의 내적 무의식의 세계 속에만 머물고 있을 뿐이다. 회개는 이런 잠으로부터 깨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것(change the way)'을 의미한다. 오던 길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생각하는 방법(think)과 살아오던 삶의 방법(act)을 바꾸는 것이다. 단지 행위의 죄만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된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무디어져 가고 있다. '영적'이라는 말이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현실적 죄에 대한 민감성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와 어린 아이들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분명함에도 오히려 늘어나는 예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있기도 하다.

2.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11절)인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14절)이다.

우리나라는 수 십 년간 개혁을 외쳐 왔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제 자리인 것을 안타깝게 발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돌아갈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개혁인 혁명(revolution)은 그 의미가 회전, 원래대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어떤 이는 단군에게로 돌아가자고 한다. 어떤 이는 군사독제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권위주의적인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돌아갈 근본이 거기인가?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대개혁을 달성하게 될 것인가? 초대교회인가? 중세교회인가? 미래교회인가?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아픈 곳의 나음을 입고, 상처가 아물게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교회가, 이 사회가 돌아가야 할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개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도덕적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3.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늘 깨어 있는 삶을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마11:29)”고 하셨다.

성경적 성결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을 추구하는 생활의 태도이다. 그것은 반대로 교만과 분노를 멀리하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신 주님을 따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온갖 모욕과 큰 고난을 오래 참으시고 견디신 주님을 따라 분노를 버리고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웨슬리 회심 주일에 우리는 교회의 개혁과 이 사회의 개혁을 꿈꾼다. 그것은 오직 성경적 성결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감리교인 하나하나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죄에 대해 민감한 감리교인, 불의에 민감한 감리교회가 많아져야 할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호남선교 대회에 이어 영남선교 대회를 통해 이 민족 가운데 대 부흥의 불길을 다시 점화하길 원한다면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모든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이 성경적 성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고백이 보여져야만 할 것이다.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희년의 축복을 부흥의 불길로

(눅 4:18-19)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희년(Year of jubilee)이라는 절기가 있다. 희년의 의미는 빛의 탕감과 노예의 해방이라는 규례로서 진정한 의미의 희년은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상징과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성취시킨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자적인 희년(year of jubilee)은 50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구약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된 증거는 없다. 달력의 날짜를 따져서 금년은 희년이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진정한 희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도 감사도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희년의 축복은 반드시 부흥의 불길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일으키시는 희년의 축복은 성경적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여호와와 종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노예의 굴레에서 벗겨주시겠다는 희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동시에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웨슬리 회심 269주년을 맞이하여 웨슬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웨슬리를 통하여 일어난 희년의 축복이 부흥의 불길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웨슬리가 브리스톨 킹스우드로 조지 헛필드의 요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이 아닌 곳에서 전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웨슬리에게 바로 앞에 앉아 있던 한 광부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전통이나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래서 웨슬리는 중대한 결심을 한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웨슬리를 부흥의 불쏘시게로 사용하시려는 부르심(Calling)이었고, 길거리 전도자로서, 희년의 복음을 전하므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한 불씨였다.

웨슬리는 1739년 4월2일 한함마운트(Hanham Mount) 근처 우시장(최초설교지)에서 길거리 전도자로서의 첫 포문을 열었는데 그때 모였던 인원이 3천명이었고 첫 설교의 본문이 눅4:18-19절 본문이었다. 웨슬리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어제 저녁 헛필드의 집회에서 보았던 한 광부의 뜨거운 눈물과 진정 희년의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그 이후

사랑의 혁명을 일으켰던 회년의 복음으로 부흥과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부흥의 주체자가 되었다.

어둠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흥운동의 시작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복음에 대한 잘못된 접근방법과 전통에 눈이 가려져 있던 웨슬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복음과 부흥운동의 모델을 성경과 웨슬리를 통하여 살펴보자.

1. 부흥운동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1)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a)

성령이 오심의 목적은 회복의 은총과 부흥을 주시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 덮힌 세상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창조가 시작되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 이사야 시대에는 민족의 소망이 끊어져 포로로 전락된 이스라엘을 보며 부르짖는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보여주신 환상과 종의 노래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의 회복과 부흥이었던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의 성령을 기름부으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보여주신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자와 소경을 고치고, 눌린자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진정한 구세주이셨음을 보여주셨다.

웨슬리를 통하여 일하신 성령의 역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어둠에 앉아 절망하는 백성에게 소망을 주었고, 이 땅에 감리교회를 남겨 놓았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이처럼 회년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

2)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또한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체적인 검증의 표이다. 모세를 불러 지팡이를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며 담대히 나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심으로 구세주로서의 사명자로 불리내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모두가 비겁자요, 겁쟁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사도가 되었고 부흥의 주체자들이 된 것이다.

웨슬리도 성령받기 전에는 경건한 신부요 신학자요 선교사였지만 복음의 사도는 되지 못했다. 조지아주에서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올더스케이트에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거듭나고, 브리스톨에서 길거리 전도자로 부르심을 통하여 52년 동안 영국 전역을 누비며 새로운 부흥운동의 주역이 된 것이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처럼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이들에게 약속하시

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징표다.

3)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하심은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도 경건생활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실패와 좌절과 갈등은 갈수록 더해 갔고, 조지아 주 사바나에서의 실패는 깊은 낙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절망과 고통을 주었다. 부흥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거대한 행사나 신학논쟁이나 은사집회로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나 전도가 지속적인 운동(Movement)으로, 그리고 속회를 통하여 조직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오늘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선포해야 할 회년의 진정한 축복이 부흥의 불길로 이어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해야 함과 동시에 냉철한 분석과 전략으로 지속적인 부흥운동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중의 참기름을 먹어보고는 통탄했다.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지만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그들이 보기에 도회지에서 참기름이랍시고 먹는 것들은 모두 참기름에 낙화생기름을 탄 것이거나, 참깨 껍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서 섞은 것이었다. 또 저질의 수입깨를 볶아 짠 가짜 참기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골서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 팔기 시작했다. 당장은 이윤이 박할 지라도 그렇게 신용을 지키면 손님이 많아져 장사가 잘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달 후 그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다. 그것은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참된 복음이나 부흥운동은 이들 부부가 시장에 내놓은 진짜 참기름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웨슬리 부흥운동의 전통을 담아내고 있는 속회가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감리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다.

2.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18a)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가난을 겪어 본 이들은 참 가난이야말로 불평의 한계를 넘어서 고통이라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주림을 참아야 하고,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약을 사다 먹일 수 조차 없다. 우리 민족은 오랜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죽어라고 일했다. 잘 살 수 있다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다. 운명같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담보로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도 용병으로 자원하여 갔다.

가난은 큰 고통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대 물림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 한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고후 8:9)”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려고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예수님이 자원하여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신다. 18세기 영국의 사회는 극도로 피폐하고 혼돈 자체라고 할 만큼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있던 종교의 횡포는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극단적인 청교도들이었던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없도록 그들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학적인 주장을 함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제대로 접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당시 영국의 국교회 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흐르고 있던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의 비참함은 말할 수 없었다. 웨슬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밑바닥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실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였다. 감리교인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금요일이면 양고기 1근씩을 나누어 주어서 ‘양고기 복음’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고아들을 위해서는 고아원을 설립하였으며, 웨슬리는 평생 28파운드 이상의 생활비는 쓰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제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옥스퍼드의 메도디스트들] 가운데 한 사람은 1년에 30파운드를 벌었다. 그런데 28파운드로 생활하고 40실링은 남에게 주었다. 그 다음 해 60파운드를 벌어서 여전히 28파운드로 생활했으며 32파운드는 이웃에게 나누어주었다. 삼년째 되는 해에 이 남자는 90파운드를 벌었는데 62파운드를 나누어주었다. 사년째 되는 해에는 120파운드를 벌었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28파운드로 생활했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92파운드를 나누어주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다.

웨슬리 감리교도들은 웨슬리의 경제윤리에 따라 ‘할수 있는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대로 많이 남에게 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부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의 능력은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3. 복음은 포로된 자들과 눈 먼 자들과 눌린 자들을 해방시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18b)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 축복하신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였다. 그런데 사람이 뱀에게 속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다 빼앗겼다.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에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전락되었다.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되어 하루도 술이 없이는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포로가 되어 도박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못견딘다. 많은 이들이 이처럼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공중 권세잡은 자의 조종을 받으며 끌려 다니고 있다. 포로는 싫으나 좋으나 자신을 포로로 잡은 자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포로는 자유가 없다. 간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자유케 된다.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잃어버린 복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유의 회복이며, 이것은 바로 구원이고 인간의 행복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유인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이며 진정한 회년의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은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은혜인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하고 중얼거렸다.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셨다. 육안은 멀쩡하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영적인 소경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다. 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온 몸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 한 복판에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두 눈을 크게 뜨고서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소경이었다.

웨슬리가 복음을 외치는 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며, 복음의 진보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방해하고 박해를 하였던 이들은 영국국교회 신부들이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나 지식이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사랑의 혁명을 일으켰던 웨슬리의 복음운동은 교회안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해가 만민에게 비추어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냈던 것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고 소금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웨슬리 회심 269주년을 기념하면서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경적인 부흥운동이라고 믿어서 웨슬리가 염려했던 바 “나는 감리교회가 쇠약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교리와 정신과 훈련을 소홀히함으로 잃은 무성한 바리새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서 웨슬리의 가슴을 흔들고 영국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 부흥의 발자취를 Again 1907년을 외치는 이 땅에 1903년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메도디스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 3:1-8)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교훈이 매우 큼니다. 니고데모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나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에 걸쳐 나타납니다(7:50; 19:39).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관원의 뜻인 ‘아르콘’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데,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으로 그 구성원의 수는 71인으로 알려졌으며, 고위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고위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친히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두 번씩이나 언급했습니다(19:39). 그가 굳이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타인의 이목이 두려워서, 분주한 낮시간을 피해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오래도록 나누기 위해서, 혹은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논쟁하였던 당시 랍비들의 관례에 따라서 그러했다는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밤’은 악과 거짓과 무지의 실재(reality)로써 상징되고 있습니다(11:10). 가롯 유다는 ‘밤’에 예수님을 떠남으로써 빛으로부터 사단에게로 함몰되어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니고데모는 어둠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온 셈입니다(the Anchor Bible).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바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늙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자기 같은 늙은 사람에게 새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시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같이 늙은 사람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둑이나 창녀처럼 사는 사람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같이 존경받는 사람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물’에 대한 여러 견해로 엇갈린 해석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세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서에는 물과 성령이 세례와 관련해서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요 1:26, 31; 마 3:11; 막 1:8; 눅

3:16).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희생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에세네파(Essenes)에서도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 물세례를 행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물은 다양한 용도 가운데 우선 더러운 것을 씻는데 사용됩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는데 사용됩니다.

강남 석촌호수가에 커다란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약 3백 60여 년 전 청나라의 강압에 의해 세워진 ‘삼전도비(三田渡碑)’입니다. 이 비는 1636년 12월 청태종이 대병을 이끌고 침공하였을 때 남한 산성에서의 항전도 보람없이 인조가 삼전도에 나아가 항복하는 욕을 당하여 백성의 어육(魚肉)을 면하였던 사실을 이 비(碑)에 담아 세우게 된 우리 민족 치욕의 기록입니다. 인조는 피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갈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부부를 청태종에게 인질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2년 뒤 사신으로 간 최명길에 의해 끌려갔던 여자들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끌려간 여자들 가운데 거기서 애를 낳고 사는 여자들도 있었으나, 조선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양반집 자녀들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귀국하는 사람들은 무려 3만여 명에 이른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습니다. 영영 돌아올 수 없으리라 여겼던 가족들이 돌아와 조선 강토를 들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호도 잠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 돌아온 여자들을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돌아올 환(還), 고향 향(鄉), 계집 녀(女), 즉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란 뜻입니다. 후에 바람난 여자들을 가리켜 ‘화냥녀’이라고 부른 유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선뜻 받아들여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미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의정 장유(張維)까지도 속환되어 돌아온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여인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목을 매어 죽었고, 더러는 강물에 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강을 지정하여 몸을 씻게 했습니다. 한양의 경우 ‘세검정’에 가서 씻게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씻긴 후에 비로소 용서를 했고 용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게는 못하고 모두 고개 너머에서 살도록 했는데 그게 바로 ‘홍제동’입니다. 클 홍(弘), 건넌 제(濟), 마을 동(洞)입니다. 즉 크게 인심을 써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한 동네란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야기로 보충했습니다. 마음에 물을 뿌려 중심을 바꿉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사실에 있다고 보아야 무방할 것입니다. ‘거듭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노텐’의 문자적 의미는 ‘다시’ 또는 ‘위로부터’란 뜻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3장 31절에서는 ‘위로부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직역하면 ‘born from above’로써 ‘위로부터 출생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regeneration)’ 이라고 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나 글에서 ‘중생’ 이라는 표현보다는 ‘거듭난다(born again)’ 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였고, 주로 신생(new birth)’ 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막 1:8). 물세례가 외형적이며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면, 성령세례는 내면적이면서 구원의 주관적 경험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justification)와 중생(regeneration)의 관계로 비교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화가 그리스도의 역사라면, 중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인화가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객관적 은총이라면, 중생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서 경험되어지는 주관적 은총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에 관한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마 3:11; 막 1:8; 요 1:33; 행 1:5, 11:16; 고전 12:13). 성령세례는 회개와 성화, 그리고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성령세례는 성령으로 지배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았는데도 우리 안에서 죄가 꿈틀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대도(大盜) 조세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1970-80년대 초반 대담하게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 저택만을 상대로 금품을 털었고, 그중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현대판 홍길동’ 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드라이버 하나만으로 철통같은 경비를 뚫고, 권력자와 재벌의 집만을 골라 털어 상류층의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끼던 서민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2년 11월 수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으나, 1983년 2차 공판 도중에 도주했다가 115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1998년 11월, 그는 징역 15년을 살고 출소했다. 그는 감옥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찾는 듯했습니다. 이듬해엔 사설 경비업체에 취직해 범죄예방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0년 5월에는 16살 연하의 아내를 맞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0년 11월 신앙간증을 하러 일본을 방문했다가 대낮에 도쿄의 한 주택가에 들어가 금품을 털다가 잡혀 복역하다 감형돼 지난해 3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씨는 귀국 후 노인 복지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또다시 2005년 한 치과의사의 집을 털려고 들어갔다가 화장실 방범창에 설치된 전자 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에게 절도는 뿌리깊이 박혀있는 습관으로 경제적 여유를 떠나서 자신이 아무리 하지 않으려 해도 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재발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성령이 역사할 공간은 없는 것입니까? 습관적인 나쁜 버릇이 조세형 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중생한 후일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인 원죄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로써의 죄로 중생한 자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범죄는 원죄의 가치와 열매에 해당됩니다. 웨슬리는 이 남아 있는 죄의 뿌리를 제

거하기 위하여 성결을 제시합니다. 중생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중생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성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중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중생 이후에도 더 성결한 생활을 지향해야 합니다. 웨슬리는 중생한 자의 표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중생한 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중생한 자는 완전 성화까지 계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금년은 'Beyond 1907년 영적대각성운동' 이 있는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운동은 감리교가 시작한, 감리교 주도적, 감리교적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런던 타임즈>의 셰실 경(Sir, Cecil)도 평양 장대현교회의 집회를 웨슬리적 경건주의 부흥회라고 비유했습니다. 웨슬리 일기에 나타난 부흥운동의 현상과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현상이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교회 안에서의 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비정치화하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종 사회참여와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감옥생활을 돌보았고 그들을 기독교신앙으로 개종시켰습니다. 한국정부를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부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치철학과 사회윤리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국교회사 학자들도 있습니다. '1907년 영적대각성운동' 이 있는 직후 1910년에 뼈아픈 한일합방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비정치화와 탈역사화의 자세를 취하여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그 당시에도 감리교 지도자들은 부흥운동과 애국운동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로 손정도 목사와 현순 목사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교회가 말하는 'Again 1907 평양대부흥운동' 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여,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Beyond 1907 영적대각성운동' 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공.동체 모두의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0-70년대의 성령운동과 교회성장 운동으로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곧 물질적인 축복으로 연결시킨 기복주의적 신앙운동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도덕성이나 역사성이 결여된 물질 축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에 대한 영적 권위와 영적 리더십을 잃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신앙과 인격의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권위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해 미국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친 한마디는 “한국교회 물질축복은 나눔을 위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로 알고 외친 예언자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웨슬리는 돈 사용의 세 원리를 설교하였습니다. “열심히 벌여라(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give all you can).” 우리는 웨슬리의 청지기정신에 입각하여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어야합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의 1/2 혹은 1/3은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그 나머지는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세계 2위의 부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자신의 재산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74억 달러(약 37조원)를 세계 제1위의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다고 발표하여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녀들이 셋이나 있지만 그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일도 택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그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남긴 앤드류 카네기의 삶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기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부 발표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올림픽 출전 선수라고 해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족 승계는 옳지 못하다.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의지를 꺾지 않을 정도의 돈만 지원하면 된다.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반사회적인 일이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면 그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지난 ‘월간조선’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남기업 회장 성완중 장로님에 관한 기사입니다. 년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회사로 키운 분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아들에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하나씩만 사주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인께서는 뭐라 합니까?” “1999년,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제가 공언한 건데, 물론 사전에 가족으로부터 흔쾌한 동의를 얻었어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 제가 가진 주식을 모두 처분해 장학재단이나 사회사업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금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개인도 거듭나고 교회도 거듭나야 합니다. 평신도도 거듭나고 목회자도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은 감리교회와 개신교의 위기입니다. 방송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언론회’는 지상파 방송의 위세를 에베소서 6장에 언급된 ‘공중 권세 잡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언론이 주는 부정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일을 하지 맙시다. 아예 책잡힐 일을 하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웰빙의 힘이신 성령님

(요한복음 14:15-27)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웰빙’입니다. 이 웰빙(well-being)의 핵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성장합니다. 고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중의 복이 건강의 복이며 진정한 웰빙도 건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고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건강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만큼 속사람의 건강도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여도 마음과 영이 병든 사람은 더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속사람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사실은 훨씬 무섭습니다. 병든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던져도 소용이 없고 기도를 하여도 기쁨이 없습니다. 역기능,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속사람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치 못한 가정에서 문제아가 생기는 법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는 늘 파당이 있습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진정한 웰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만남, 수양을 하고,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는 서로 도우며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건강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어느 대학 여교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그는 외국에 유학하여 학위를 받고 국내 모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교단에 섰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도 나간 사람이지가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지도나 심방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이 왔으니 후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사람은 못해도 성령이 임하면 뜨거운 불길로 당신의 암세포를 태우실 것입니다.” 이 여교수는 목사님의 말을 믿고 새벽기도부터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서글퍼서 울기 시작하였고 그 눈물은 기도의 눈물로 바뀌었습

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기도하던 그 여교수는 어느 날 새벽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암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전인적인 건강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질병이 떠나고 창조시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속사람이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해집니다. 가정과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의 웨슬리를 보십시오. 지성과 경험, 윤리만으로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진정한 건강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16-17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라는 성서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인데 그 뜻은 ‘곁에 있으면서 돕는 자’ 입니다. 그 분은

1)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26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12:3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10:19-20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 하늘의 평안 즉 모든 평안을 주십니다(27절). 고로 그 분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 이유인즉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무서운 것이 없는 담대하고 자신 있는 인생이 됩니다. 원형경기장으로 끌려가 순교한 성도의 유지 한 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뿔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지식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이토록 강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한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 기뻐집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유행한 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네.”의 가사입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지요. 오!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춤추게 한 답니다. 완전히 충만하게 말이지요. 오! 성령께서 당신을 춤으로 해방시킬 것이며 당신 마음도 역시 춤추는 것으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다윗처럼 춤출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죄 용서, 구원의 감격, 사명(존재의 이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알고 살아갈 이유를 알기에 저절로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2)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네 안에 거하시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이해와 용서 용납 나눔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피차, 서로’라는 말이 무려 70번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42이하에 나오는 성령공동체인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워 주고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는 공동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하나가 됩니다. 어느 그룹에서 ‘교회는 무슨 연유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했 답니다. 여러 면에서 분석하였지만 그들은 그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3)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하여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병자가 나으며 방언을 말하며 환상을 보며 문제해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같은 사람들이지만 사도행전 이전과 이후의 그들은 질이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장성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4) 주님을 닮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우리 속에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치우칩니다. 은사만큼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칠 때 1907년을 넘어서는(beyond 1907) 한국교회 제2부흥을 맛보는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3.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 질 수 있습니까?

1) 내 뜻대로 살아 온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하십시오.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님이 오십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순종할 각오를 하고 기다릴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2)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십니다. 혈기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구걸하지 말고 사랑받는 아들처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사도행전1:4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문제가 오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꼭 먼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는 준비된 그릇에 성령을 부으시고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문제를 축복의 재료 삼아 일하십니다.

3)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해야할 대목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가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며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 웰빙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를 보십시오. 그의 탁월한 윤리적인 삶, 지성, 선교적인 열정이 있었지만 그의 사역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738년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그는 달라졌습니다. 불리는 가슴이 타오르는 뜨거운 거둬냄의 체험을 한 그때부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맨 처음 설교는 옥스퍼드 대학생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설교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움켜잡고 데굴데굴 구르며 회개하였습니다. 뉴게이트의 감옥에서도 ‘거저 주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죄수 앞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웨슬레가 크게 믿음의 구원을 외치자 여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드렸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칼날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박혀들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뜨거운 불길과 같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67cm에 54kg밖에 되지 않은 작은 몸으로 52년간 334,672km(매년 6,436km)를 여행하였습니다.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돌아다녔습니

다. 그 동안 4만 2천 번이나 설교하였고, 그 틈에 2백 권이 훨씬 넘는 책을 펴내기도 하였습니다. 50이 넘는 나이에도 하루 평균 32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그의 삶이 웰빙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힘입니다. 결국 그의 건강한 삶은 타락한 영국에 무혈 혁명을 일으켰으며 한 시대를 구원하였고 감리교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분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사 능력을 주시면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의하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시어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를 통하여 1907년을 넘어서는 부흥을 주옵소서!”

주제 : 각성하게 하소서

- 조용한 기도 :
- 찬송 : 211장(그 참혹한 십자가에)
- 본문 : 에베소서 5:8-14
- 제목 : “웨슬리의 후예들이여, 영적 대각성을 회복하라!”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지난 12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여 오늘날 전 세계 감리교회의 가장 앞장선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와 같은 부흥이 언젠가부터 주춤해지고 신앙이 안일해지면서 교회가 한편으로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리교회가 그러한 침체된 모습을 극복하고 깨어 일어나 다시 힘차게 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위로부터 부으심 받아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리교 성도 모두가 합심하여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고 대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웨슬리의 후예들인 한국감리교인들이 오늘의 역사적 사명을 깨닫고 영적 회복과 부흥의 횃불을 불붙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백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다시 이 땅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1. 우리 모두 웨슬리의 부흥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한국교회의 초기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캐나다 출신인 미국 남감리교회의 선교사 로버트 하디에 의해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에서 출발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실패와 절망의 깊은 심연에서 회개하면서(시 130:1-4)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그가 즉시 그 경험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고백, 간증할 때, 웨슬리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디 선교사를 제 2의 웨슬리로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 2의 웨슬리, 혹은 **한국의 웨슬리**라고 할 수 있는 하디 선교사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애통하

면서 한국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교회로 회복, 부흥시키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웨슬리의 부흥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체험의 영성**입니다. 단지 교리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임재와 능력으로 마음 깊이 직접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때, 참된 회개와 애통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보다는 다른 많은 말들과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도들은 철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고난을 두려워함 없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그와 같은 영적 훈련과 온전한 헌신을 실천해야만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는 참된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초대교회 대부흥운동의 영적 경험을 회복합시다.

웨슬리 부흥운동처럼 한국 대부흥 운동은 영적 생명의 경험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창조의 경험인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영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흥 운동을 통해 새 생명의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초기 교인들은 부흥의 불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후에 기쁨과 행복,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충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변화되었고, 또한 환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여주는 구세주의 사랑의 증인들로 성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 접촉한 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인격적 친교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시 사회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외적 성장과 부흥으로만 안 됩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대각성의 영적 경험처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표시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감리교회는 영적 대각성을 위해 애통하고 회개하며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웨슬리 회심 주간을 지키면서 감리교 성도 하나 하나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써 이 민족의 죄, 교회의 죄,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와 애통에 귀 기울이셔서 한국교회를 갱신시킬 새로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 땅에 회복시키시고 또한 영적각성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공동 회개문

사회자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오히려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회 중 : 용서해주옵소서.

사회자 :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기 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달려 왔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 찬송 : 217장(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제269주년 웨슬리회심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주제 : 양심을 가지게 하소서

■ 조용한 기도 :

■ 찬송 : 210장(내 죄 사함 받고서)

■ 본문 : 베드로전서 3:13-22

■ 제목 : “선한 양심을 세우라”

1.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 묻자 “옷과 음식에 여유가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고, 세리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고 하였으며, 군인에게는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고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세례 받은 사람은 “양심에 따라 행함”으로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중생을 거쳐 성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회개함으로 회복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할 때 성화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동은 양심 회복운동으로 연결됩니다.

2. 윤승근의 양심전

1903년 여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회개와 중생의 체험을 수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선교사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 조사와 전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무렵 중전 전도인 윤승근(尹承根 혹은 윤성근)의 회개와 배상에, 선교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승근은 본래 경기도 고양읍 벽제에 살면서 ‘난봉꾼’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었으나, 1897년 남감리회 전도인 김주현과 김홍순의 전도를 받고 새 사람이 된 후, 고양읍교회의 창립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감리회 전도인으로 파송을 받아, 1898년부터 강원도 김화 새술막(지금의 학사리)에 자리잡고, 김화와 철원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1903년 여름 하다가 인도하던 원산부흥회에 참석하였다가 ‘회개와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디의 증언입니다.

“그(윤승근)도 성령의 견책을 달게 받고 사경회와 같은 모임에서 몇 차례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선교사들이나 한국인들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 어떤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은총을 입지 않았더라면 것처럼 편안하게 자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번은 과거 선교사 밑에서 매서인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빼돌린 것이 7달리에 달했다고 자복하였습니다. 그는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선교사를 만나기 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윤승근은,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부흥회를 마치고 김화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줄곧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과거에 모든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사 남김없이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길을 걷는 중에도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행여나 숨긴 죄가 있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 인천 주전소(鑄錢所)에서 근무할 때 횡령한 돈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때 한 번 회사에서 급여계산을 잘못해서 그에게 두 달분 월급이 나왔는데,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했던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는 쓸 것을 쓰지 않고 돈 20원을 모아 인천 주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화폐개혁으로 인천 주전소는 폐쇄되고 없었습니다. 그는 주전소의 기능을 흡수하여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탁지부(度支部, 지금의 재정경제원)로 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사정을 들은 탁지부 관리는 “다 지난 일”이라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윤승근은 “양심상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탁지부 관리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저 나랏돈이면 없는 구실을 대서라도 빼내가려는 것이 세상인심인데, 어찌하여 예수교인은 아니

값아도 될 것을 값졌다고 하는가?” 결국 탁지부 관리는 그 돈을 받으면서 영수증 항목에 ‘양심전’(良心錢)이라 썼습니다. 그 영수증은 하다가 기념으로 가져갔습니다.

3. ‘참 교인’ 되기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하여 1907년 평양에서 초기 부흥운동으로 성령을 체험한 한국인들에게, 내외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분과 출신지, 나이와 환경이 달랐지만 성령을 체험한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둘째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자복)하였으며, 셋째 자복 후에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으며, 넷째 회개 후에는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중생과 성화의 체험입니다.

기도 : 주님 이 웨슬리회심 269주년 주간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운동과 더불어 양심의 회복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사회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공동 회개문

사회자 :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순간의 불리함을 모면하기 위해 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땀 흘려 수고해 얻은 소득을 감사하기 보다는 일확천금을 기대했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 찬송 : 265장(옳은 길 따르라)

■ 주기도문 : 다함께

주제 : 정결하게 하소서

- 조용한 기도 :
- 찬송: 179장(이 기쁜 소식을)
- 성경본문 : 요한복음 19:28-30
- 제목 : “성화를 이루자”

영적각성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육신의 사람(죄인)이 영의 사람(의인)이 되고, 땅의 것만 바라보던 영적 장님이 하늘의 계시를 깨닫는 사건입니다. 이 축복의 영적 각성은 매주일 예배와 기도시간, 그리고 성경공부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하나님은 각 시대의 정신적 수준에 필요한 메시지(=영적 가치)를 선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땅에서 고통 받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가나안 땅”이라는 영적 가치를 보여주셨고, 400년 동안 압제의 상황 속에서 노예의 근성이 뿌리박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는 영적 가치를 선물하셨으며, 육신의 죄 가운데 고통 받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법”이라는 영적 가치를 선물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그 시대의 정신적 수준에 필요한 “하늘의 영적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시대를 구원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실시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 하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1.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이 땅에 “거룩함을 이루는 운동”입니다.

오늘의 세대는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국무총리 및 대통령을 선출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깨끗함**”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발전시키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는 운동”이어야 할 것입니다.(벧전 1:15-16) 바울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히12:2)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요 14:10)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

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의 역사”가 현실화됩니다. 이로서 거룩해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 ‘감리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장점들을 지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조직결성(제자양육)”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는, 10개 연회 195개 지방이라는 훌륭한 국내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어느 개신교파도 감리교의 조직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 감리교의 풍부한 영적 유산은 이 시대의 다양한 문화를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삼일운동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 모든 장점과 전통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성령으로 거룩을 이룬 자만이 영적 대 각성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움으로 그를 사용하였고, 모세를 시내산의 불 가운데 불려들임으로 그를 축복하셨으며, 초대교회 120문도를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함으로 그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성부/성자/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함의 축복을 체험한 바울은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시대의 배후에서 정신을 타락시키는 마귀야! 네가 승리할 것 같으냐!”(고전15:55)라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만이 영적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영적 대각성운동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영적 대각성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있는 계시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공동 회개문

사회자 :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여기며 은밀한 죄를 즐겼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하나님 앞에서 성결치 못하고 음란의 유혹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TV와 인터넷, 달콤한 세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 찬송 : 213장(먹보다도 더 검은)

■ 주기도문 : 다함께

제269주년 웨슬리회심주간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주제 : 사랑하게 하소서

■ 조용한 기도 :

■ 찬송 : 447장(오 신실하신 주)

■ 본문 : 예레미야 3:8-10; 요한계시록 2:4-5

■ 제목 :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치, 경제적으로, 종교, 신앙적으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던 요시아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여지없이 꾸짖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유다의 죄는 성실하지 못함 또는 ‘신실하지 못함’ (unfaithfulness)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렘 3: 8)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 척하며 불의를 행하는 유다의 죄가 더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를 두고도 간음하면서도 아닌 척하는 사람이 차라리 이혼하고 간음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본 것입니다.

1. 성실한 삶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미디어리서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교파(自敎派) 및 자교회

(自敎會) 중심적인 이기주의(40.3%), 교회의 대형화, 성장제일주의(23.9%)가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성실하지 못한 교회는 지난 10년간 종교 인구센서스 조사결과가 잘 보여주듯이, 개신교인의 감소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개 교회 중심의 이기주의와 성장제일주의가 도리어 역설적으로 교인을 감소시키고 교회의 공신력을 추락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웨슬리 형제에 의해 영도되었던 감리교 부흥운동도 거의 50여년을 지속하다가 존 웨슬리 목사의 말년에 이르러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의 진단에 의하면, 영국 감리교 교인들이 부유해지면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게 된 것이 감리교 운동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00여 년 전의 초기 “대부흥운동” 으로부터 비축된 영적 에너지로써, 일제시대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수난과 혼돈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찬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외형적 규모와 숫자에 취하여, 내면적인 측면에서 영적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2. 회개하는 삶

성령께서 에베소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에베소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에베소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꾸짖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계3:5) 먼저 하나님과 이웃에게 성실한 삶을 살았던 초기 에베소교회와 영국감리교회 교인들, 초기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remember) 합니다.

3. 믿음을 지키는 삶

이제 한국교회는 욕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욕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과 건강 그리고 자녀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저 복 받고 잘되고 삶을 즐기는 기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욕은 망하고, 병들어 죽게 되고, 심지어 친구와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성실했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감리교회는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희망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신실한 사람들”(Faithful Members, FM)을 감리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미지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성실할 수 있음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십시오.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회복하십시오!

기도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공동 회개문

사회자 :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에 빠져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 하였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하여 이루어 놓은 민주화와 경제적 풍요에만 안주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성도의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 찬송 : 516장 (맘 가난한 사람)

■ 주기도문 : 다함께

제269주년 웨슬리회심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

주제 : 살리게 하소서

■ 조용한 기도 :

■ 찬송 : 413장(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 본문 : 에스겔 37:1-14

■ 제목 : “살림의 역사(役事)를 이루자”

개혁을 열망하는 시대를 살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개혁 때문인지, 요즘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부정, 부조리, 부패, 반칙 등이 만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은 개혁에 환호했으며, 우리는 “꿈에도 소원은 개혁!”을 부르짖을 만큼 큰 열망 속에,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만족

스럽지 못했습니다. 제도적 개혁은 많았지만 내용적 개혁은 적었습니다. 변화의 소리는 컸지만 변화의 성과는 적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원하기는 희망을 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감리교회가 그들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웨슬리 회심주년을 통한 영적 대각성을 통해 희망을 주기 원합니다.

1. “생명을 살리는 역사”

영적 부흥이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한국교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08년 북 감리회 해리스 선교사는 평양 대부흥운동 발흥 후,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자, 광신적 유학자, 구태의연한 불교도, 수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적 각성은 이런 변화를 동반합니다. 즉 영적 각성에 따른 변화는 생명을 살리는 변화입니다. 사람이 살어나고 가정이 살어나고 교회가 살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회가 살어나고 나라가 살어나고 민족이 살어나는 것입니다.

1903년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으로 인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던 평양이 주일이 되면 시내의 상점들이 철시하고, 온 시내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영적 각성으로 도시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2. “사회적 약자를 살리는 역사”

100년 전 있었던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할 수 힘을 주었습니다. 100년 전 봉건의식에 매인 사람들에게 축첩과 조혼과 노비제도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 그들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노비제도의 희생자들을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을 갖습니다. 에스겔에게도 여호와와 말씀이 임했고 그가 여호와와 말씀을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겔37:10).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 대언했듯이, 교회도 냉혹한 생존경쟁의 비수에 찢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3.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전파하라”

먼저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초기 한국 감리교회의 모임장소는 신앙훈련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친교와 정보를 나누는 장소였으며, 빈민가정의 자녀에게는 학교와 병원이었으며, 가난한 상인들에게는 신용협동조합이었습니다. 웨슬

리도 런던에 여러 개의 구빈원을 세워 고아, 과부, 장애인, 전쟁미망인들을 도왔으며, 병자의 방문과 구제를 위한 연합회를 조직하여 당대에 사회안전망을 앞장서 구축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구원의 방주를 교회 밖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2차 대각성운동이 전개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미성년자들의 노동이 금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 후, 영국에서는 주당 90시간의 노동이 60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치적, 사회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종교적 부흥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마이어(F.B.Meyer)의 말이 새삼스럽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강하게 일어난 곳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많은 문제들이 풀렸습니다. 영적 각성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림”의 일을 도처로 전파해가는 하나님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 하나님,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기억합니다. 나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이웃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부인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공동 회개문

사회자 : 나를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었던 이웃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갚으려 했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이웃과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소홀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되었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 찬송 :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주기도문 : 다함께

주제 : 하나되게 하소서

- 조용한 기도 :
- 찬송 : 245장(시온성과 같은 교회)
- 본문 : 에베소서 4:1-6
- 제목 :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여성과 남성이 일치하고 조화를 이룬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는 사분오열되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계층과 계층, 남성과 여성, 종교와 종교로 나누어져 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쟁하는 이 세계에 화목제물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고후5:18). 화목케 하는 직책은 하나 되게 하는 직책입니다.

1.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집시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도공이 자신의 혼을 쏟아 부어서 그릇을 빚을 때 걸작품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혼을 쏟아 부어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엡2:10)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창1:27) 당시 사람들은 왕만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폭탄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벧전,2:9)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2. 나눠주기를 잊지 맙시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자신과 하나를 이룬 사람은 이웃과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3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마.25;40) 하나님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히,13;16)

최근 서울 암사동에서 한복가게를 하는 여주인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한 미술대학에 합격한 딸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개척교회 교역자들이 가정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절박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보아스가 추수할 때 이삭을 흘렸듯이 소득 중에서 매월 1,000원 이상씩 나눠주기를 잊지 맙시다.(룻,2;16)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눅,6;38) 예수님께서도 크나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막,9;40)

3. 통일의 노래를 부릅시다.

나눔을 통하여 이웃과 하나를 이룬 사람은 민족 통일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허리가 동강난 몸을 어찌 살아 있는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 전에는 살아 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민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4절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백 수십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을 통 털어 수십조 원이 해마다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서 이 엄청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민족복지와 세계 평화를 위해 쓰일 날이 오도록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4. 5대양 6대주 마을 마을마다 교회를 세웁시다.

판넨버그(W.Pannenberg)는 교회는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도구라고 하였습니다. 민족 통일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감리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합니다. 오대양 육대주 마을 마을마다 교회를 세웁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기도 :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사66;23)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옵소서(엡2;10-11)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한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공동 회개문

사회자 :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와 중보기도에 둔감하였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억압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북한 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 회생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기도하겠습니다.

■ 찬송 : 찬송 268장(온 세상 위하여)

■ 주기도문 : 다함 께

제269주년 웨슬리회심주간 특별 새벽기도 일곱째 날

주제 : 꿈꾸게 하소서

■ 조용한 기도 :

■ 찬송 : 169장(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 본문 : 사도행전 2:16-17

■ 제목 : “2007년 감리교 영적 대각성을 꿈꾸며”

하나님께서서는 흑암으로 가득한 나라, 소망을 잃어버린 이 민족에게, 지금부터 122년 전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 1895년 민비 시해의 사건,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 1907년 고종황제의 퇴위, 1910년 한일합방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황제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소!”** 바로 그 때 1903년 8월, 원산에서 개최된 여선교사들의 수련회 모임에서, 남감리회 선교사 하디(R.A.Hardie)가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중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중생의 체험, 기쁨과 평안의 체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변화와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계속되어, 1907년 1월 구정을 지날 무렵 평양집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에서도 자백, 통성기도의 불길이 초교파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난날 영국의 팻트레인에

서, 웨슬리에 의해 일어났던 성령운동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거 2천 년 전 성경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인간이 가장 힘들고 캄캄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이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광명의 새 빛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리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세 가지 큰 Vision**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소서

2005년 감리교 전래 1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 되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2. 세계를 책임지게 하소서

2006년 “세계감리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우리 감리교회가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Vision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 부흥을 책임지게 하소서

2007년은 “평양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다시 한 번 한국 감리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Again 1907”이 아니라 **“Beyond 1907”**로서, 2010년까지 “300만 전도운동”과 “희망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하여, 감리교회의 대부흥을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지난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50주년을 맞이하던 즈음, 독일 할레대학의 야콥쉬페너에 의해 일어난 “경건주의운동”이 웨슬리 목사에게 영향을 주어 “감리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보다 150년이나 선교의 역사가 짧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감리교도들의 선교의 열정은 미국 최고의 교단이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영성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헛필드에게 영향을 미쳐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 Movement)”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통해 100년 전의 회개운동, 영성운동, 에큐메니컬운동, 성령운동, 윤리적 성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의 이 땅에 새로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2천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젊은이는 이상(Vision)을 보며 늙은이는 꿈(Dream)을 꾸리라고 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의 부흥도 또 한 번의 성령의 폭발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 하나이다.” 부흥을 꿈꾸던 다윗의 고백처럼, 감리교회와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며 대망합시다!

기도 : 오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요엘의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이 시대의 영적 대각성운동과 세계를 품는 비전과 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공동 회개문

사회자 :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고 의심하며 믿음이 없어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한 삶을 살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불평하며 절망했음을 고백합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 찬송 : 519장(십자가를 질수 있나)

■ 주기도문 : 다함께

제269주년 웨슬리회심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덟째 날

주제 : 부흥하게 하소서

■ 조용한 기도 :

■ 찬송 : 찬송 210장(내 죄 사함 받고서)

■ 본문 : 로마서 6:10-14; 요한복음 20:22-23

■ 제목 : “부흥을 갈망한다면 죄와 싸우라”

평양 대 부흥 백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복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중에 감리교회도 이 민족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자 희망을 선포하는 일을 하며 그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신실한 사람들이 되자는 표어를 내걸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 들어 환영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할 것 같지만 곧 다시 죄가 살아나고 죄의 지배아래 머무는 순간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말기 때문입니다(롬7:17) 그러므로 복음의 영광과 감리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구호 이전에 죄와 싸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길이 무엇일까?

1.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야 합니다.(롬6:11)

죄는 우리의 내면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죄는 내재하고 있기에 살아 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죄는 끈질기며, 죄는 달콤한 가면을 쓰고 달라붙습니다. 죄는 고착성과 전염성이 있어서 작은 기회만 생기면 확산되고 물고 늘어집니다. 나아가 죄는 '사망' (롬6:27) 이라는 독을 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그 승리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죄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 죽은 자에게 죄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2.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것입니다.(롬 6:14)

은혜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엡2:8)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인중의 죄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죄였습니다(롬3:24)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 얻은 것이 은혜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 할수록 죄는 무력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을 말하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구제 하고 성경을 읽고 듣는 일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여 성화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3. 회개하는 것입니다.(요한서 1:9)

사람이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자백하는 일입니다. 용서가 임할 때 죄를 짓는 유혹이 물러가고 육체가 죄를 짓는 기회에서 멀어집니다. 이기심, 교만, 정욕, 음행, 분냄, 안일, 게으름, 분열, 시기, 추악함 등을 회개 자복해야 합니다.

4. 헌신하는 것입니다.(롬6:13)

허무하고 쓸데없는 일에 자신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사역에 마음과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열정은 모든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며 어떤 죄의 권세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헌신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능력이 주어지므로 죄가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 헌신이

없을 때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안일해집니다.

5.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요20:22)

부활 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요한20:22)는 것입니다. 승천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전 1:45)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연약함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하는 명령입니다.(엡5:18)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죄를 뛰어 넘어 사랑의 열매(갈5:22)를 맺게 됩니다. 1907년의 부흥도 결국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 가져가자,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자(롬8:2). 승리의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죄와 싸우려고 깨어 있을 때 거룩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며 성령이 임하십니다. 영남 선교대회의 성공을 통한 Beyond 1907의 비전! 그것은 개인의 철저한 기록으로 성취됩니다.

기도 :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희로 성령으로 회복되는 복음의 영광을 믿게 하시며, 죄악된 나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소서. 죄에 대해 연약한 저희를 도우소서. 나의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한국 감리교회에서 제2의 웨슬리, 제3의 웨슬리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공동 회개문

사회자 :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사회자 :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고 의심하며 믿음이 없어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회 중 : 용서해 주옵소서.

■ 찬송 : 180장(무한하신 주 성령)

■ 주기도문 : 다함께

2부

훈련용 자료모음

‘부흥’ 성경공부

성경통독 성회 자료

영적대각성 회개문

영적독서운동



| 성경공부 ·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

여호와께 돌아오라

(부흥의 초청)

VISION

- 은혜의 잔치가 준비 된다.
-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보낸 일을 형통하게 된다.
-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온다.
-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화석류가 짚레를 대신해서 난다.

찬양과 경배

여는 기도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자와 같은 귀를 주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 모두 비전과 꿈을 꾸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치유하시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잉태한 것들이 해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55:1-13

외울 말씀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6절)

▶ 하나님께 나아감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며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

아갈 때만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며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이 나아오라”고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며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를 ‘오라’고 초청합니다(계 22:17).

▶ 부흥의 메시지

1. 여호와께 돌아가면 갈급함이 채워진다(1-3)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의 전성기 2년 동안 1천만 달러(100억)의 수입으로, 제트기, 두 대의 캐딜락, 한 대의 폴스 로이스, 스테이션 웨건, 지프, 개조한 버스, 세 개의 모터사이클, 몸체에 다이아몬드와 모든 금속이 18K 금으로 도금된 리무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를린 몬로처럼 불행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난 항아리로 비유했습니다. 솔제니친은 “우리의 인생은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다 … 물리적인 법칙만으로는 인생을 설명하거나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스라엘의 수고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구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전혀 배부르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C. S 루이스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와서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입니다. 생수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를 마시는 자(의지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결코 주리지 않고(요 4:12) 기름 진 것으로 영혼이 살게 됩니다(3절).

2. 여호와께 돌아가면 영화롭게(glorified) 된다(3-5)

다윗은 보잘 것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으로 다윗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leader and commander)가 되었습니다(4절).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삼하 7:12-16). 솔로몬이 범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맹세한 언약으로 인하여 그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앗시리아의 산헤립이 쳐들어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왕하 19:34; 왕하 15:45). 하나님은 이 언약을 돌아오는 백성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달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4절).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는 영혼이 삽니다(3절).

3. 여호와께 돌아가면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다(6-9)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6절).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만나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995년 3월 19일 주일 저녁 일리노이 휘튼대학(Wheaton College)에서 800여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알았을 때 회개와 자백, 흐느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예배는 아침 6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9시 30분, 천여 명의 학생들은 음란한 책, 잡지, 비디오를 들고 나왔고, 그동안 약물남용, 분노, 증오, 성적인 범죄 등을 회개했습니다. 밤마다 계속된 이 모임에 성령님은 폭발적으로 임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은혜로 나가는 길입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캠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알고 선교를 알고 개혁운동에 성공할지 모른다. 그러나 참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8-9절). 주의 길은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4. 여호와께 돌아가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10-13)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려 초목을 적시며 귀한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그분의 뜻과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 하게 합니다(10-11절). 부흥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12절). 죄로 인하여 생긴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쥘레 대신 화석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것이 없으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 더 좋은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물결로 인하여 산들과 언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하며 모든 나무들마저 손뼉을 치며 환호합니다(12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돌아가면 이 복을 얻게 됩니다.

역사 속의 부흥 - 원산과 평양 대 부흥운동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로부터 복음이 받아들여진지 20여년이 지난 1903년 8월 24일, 함경남도 원산의 미 남감리교 선교지부는 중국선교사 하이트의 한국방문을 기념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미 남감리회 여선교사 캐롤 노울즈 하운셀, 캐나다 장로회 여선

교사 매컬리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디선교사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세운 강원도의 교회에서 일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YMCA소속 감리교 선교사 하디의 고백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함께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모두에게 강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디선교사는 기도회의 성령체험을 원산교회 주일 예배 때 말하고 한국 교인들 앞에서 다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후 기도회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거짓과 불신, 구박과 폭행, 술과 담배, 노름 등을 회개하는 윤리적 갱신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당시 원산에 있던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남감리회 선교사들을 교회로 불러 사경회를 개최하였고, 영적 회개운동은 교파를 초월해서 일어났습니다. 1905년 8월 장로교, 감리교선교사들은 서울에서 연합사경회를 열었고 9월에는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추진기로 결의했습니다. 1906년 구정을 기해 서울에서는 정동감리교회와 승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고 평양에서는 남산현교회, 장대현교회, 남문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평양의 장로교 선교사들은 1906년 여름 하디를 초청 일주일동안 기도회를 개최하고 다시 외국의 부흥사들을 초청해 부흥집회를 열었습니다. 평양 부흥의 또 하나의 도화선은 뉴욕 존스목사의 한국 방문입니다. 그는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을 전했습니다. 그가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하라”고 외쳤을 때 장로 길선주(후에 목사가 됨)가 일어났습니다.

평양기도회는 1906년 1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07년 1월6일(주일)부터 10일간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 마지막 날에, 길선주 장로는 온 회중들 앞에서 친구가 유언하며 맡긴 돈 200원 중에 100원을 가로 채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길장로의 회개를 들은 온 회중들은 모두 자기의 숨겨 놓은 죄를 털어 놓으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 날부터 한국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찬성이 인도하던 숭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성통곡하며 죄를 고백했고, 숭실 전문의 한 학생은 간음과 미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서로가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던 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일, 거짓된 행동을 한 것 등을 자복하는 물결이 계속되었습니다. 낮 기도회와 밤 집회를 인도했던 리와 블레어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백 명이 죄를 자백하는 통성기도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우리도 달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평양 기도집회는 1월 22일 끝이 났으나 부흥운동은 이때부터 더욱 불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선천, 곡산, 서울, 청주, 대구의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1908년에 중국으로 그리고 1909년 1백만 구령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를 체험하게 했으며, 사회의 윤리적 갱신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축첩, 노비, 술, 담배, 아편, 노름 등이 죄로 인식되면서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을 통해 최초로 연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연합 사업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당시 한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기독교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로 확인시켰으며 민족의 에너지를 축적해 3·1운동과 민족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기에 이른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회개하며 우리가 저지른 죄를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쓰시도록....

▶ 부흥을 위한 기도

1.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2. 하나님의 생각에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행복하도록 기도합시다.

3. 회개합시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회개했던 것처럼, 하디와 길선주장로가 회개한 것처럼 자신과 교회, 우리나라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왜 젓과 포도주를 돈 없이 거저 와서 사 먹으라고 했습니까?
2.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경험을 나눕시다.
3. 원산과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은 무엇입니까?
4. 오늘 내용 중에 당신에게 가장 감동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 성경공부 · 존 웨슬리 회심 |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부흥의 책임)

VISION

- 물댄 동산의 축복이 임한다.
- 무너진 것을 보수하게 된다.
- 땅의 높은 곳에 오르게 된다.

찬양과 경배

여는 기도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새벽에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자와 같은 귀를 주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 모두 비전과 꿈을 꾸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치유하시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잉태한 것들이 해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58:1-14

외울 말씀 :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2절)

▶ 하나님께 나아감

아프리카 르완다(인구 6백만)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90%의 후투족, 긴뿔소를 기르는 투시족, 그릇과 사냥에 종사하는 피그니 계통의 트와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4월 후투족의 시민군의 대량살상과 투시족 해방군의 보복으로 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만 명이 죽었고, 2백만 명이 죽음에 직면했으며, 25만 명이 남편을 잃고, 45만 명이 고아가 되고, 15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도 4만8천 명으로 이들이 다 재판을 받으려면 140-200년이 걸릴 것이라 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왜 대혼란

이 왔습니까? 니키 검블은 『부흥의 본질』에서 ‘의와 사랑’이 사회 속에 흐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흥이 공의로 적용되지 못할 때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시대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은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원했습니다. 예루살렘(B.C465)은 함락 전(B.C 740)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재건해야 할 것은 많은데 더 이상 발전적이지 못하고 다시 이사야 1:11-17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니다. 불의는 성령을 근심케 하며 부흥의 흐름을 막을 뿐입니다.

▶ 부흥의 메시지

1. 부흥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1-5)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두려움에 대한 해소와 일시적인 겸비함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대 금식을 4월 9일(왕하25:3-21, 예루살렘 함락을 생각하며), 5월 10일(렘52:12-13,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생각하며), 7월 2일(왕하25:23-25, 그달라의 살해를 기리며), 그리고 10월 10일(예루살렘 첫 번째 공격을 생각하며)에 실시했습니다. 금식에 대하여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일주일에 2번(수, 금)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며 공허를 베풀어 달라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문제는 금식의 태도입니다.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금식 무용론자가 되었습니다. 잠언에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잠 19:3). 저들의 신앙은 굳어지면서, 타성에 젖었고 형식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허물과 죄를 고하며 크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1절).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찾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금식하면서 다투고 논쟁했으며 경건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 혹은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것이 금식이라!”(5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요엘 2:13) 참된 금식은 마음의 문제이며 마음의 제어는 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6-10a)

경건은 사회적 정의와 함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어 주며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정의이며, 인간됨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금식할 때 사회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만 인간 앞에서 포악한 행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그 부분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높은 세금과 고리대금과 동족을 노예로 삼는 문제를 보았습니다(느 5:7-12).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않는 경건한 활동은 위선적일 뿐입니다. 목시가 없기 때문에 방자해진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참 신앙 운동을 통해 정의가 흐르게 했습니다(잠 29:18). 오늘날 우리는 궁핍, 사회 악, 비윤리 앞

에서 침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눠주는 사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sharing your bread with the poor). 설교자이면서 사회정의를 외친 복음전도자인 존 웨슬리는 비인간적 노예매매를 비난하며 사회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아놀드 토인비는 “18세기 그의 복음주의적 부흥으로 인하여 영국은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피의 혁명을 막을 수 있었으며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소년들의 굴뚝청소가 중단되었으며 죄수와 병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3. 참된 금식은 복을 부른다(8-12)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제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속히 임합니다. 손가락질과 허망 된 말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부흥의 걸림돌은 잘못된 태도와 부정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그리하면 빛이 새벽같이 비취며 치유가 급속하며 여호와와 불기둥이 주의 백성들의 앞뒤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공의는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은 뒤에서 호위하게 될 것입니다(8절). 그리고 우리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헛된 금식은 응답되지 않지만 바른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때 우리는 물댄 동산 같이 되고(well-watered garden)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12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성은 이 시대에 무너진 세계를 보수하며 황폐한 길을 수축하는 자로 우리를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4. 예배를 회복하라(13-14)

안식일 준수는 포로기와 그 이후의 유대인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주일)은 성일이므로 사사로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폐하여졌음을 의미할 뿐, 율법의 정신이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위하여 사사로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하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애써야 합니다. 그분을 존귀히 여겨야 하며, 우리 길로 행치 않아야 하며 오락을 구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speaking idle words)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없던 야곱에게 큰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14절).

역사 속의 부흥 -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1739년부터 1791년 사이에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웨슬리 부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가장 많은 장소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회심 후 한 해에 8,000km씩 말을 타면서 51년 동안 42,400번이나 설교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며 많은 선교로 ‘하나님의 기수’라는 아름다운 별명도 얻었습니다. 웨슬리는 성직자 사무엘 웨슬리와 청교도인 수산나 사이에 19명의 형제 중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국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따라 사람은 믿음과 선행에 의해서 의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청교도 교육대로 자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웨슬리는 옥스퍼드대학 안에 있는 신성 클럽(Holy Club)을 통해서 기도와 성경공부를 했고, 가난한 가정에 양식을 공급하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문했으며, 고아들을 가르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규칙주의자들(Methodists)’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조지아 선교 실패 후, 웨슬리는 영국에서 어느 모라비안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가에 있었던 집회에서 그는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날 8시 45분 경 어느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구절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벅찬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 순간은 웨슬리는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로 변화했습니다.

웨슬리의 영성은 ‘성화(sanctification)’입니다. 그는 먼저 신자들에 대하여 회심을 체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에 눈을 돌리도록 촉구했습니다. 웨슬리는 소위 명색뿐인 신자들을 가리켜 얼굴은 천국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형식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고 그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에 의해 거듭난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회개와 믿음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성화 곧 성결을 이루게 되며 마침내는 성화의 본질인 온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이루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화에 의하여 생겨나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

웃 사랑 및 봉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일평생 전도활동을 펼쳤습니다.

성령체험은 훈련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웨슬리는 모든 신자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켜 선교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속회(the class meeting)와 조(band)와 특별 신도회를 구성했습니다. 속회는 12명의 믿는 신자들로 구성되었고, 조는 6명 정도의 확실한 신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 신도회는 사유재산까지 다 맡기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성령으로 훈련된 저들을 통해서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영국교회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안일했고 무능력했습니다. 사회의 고위층들은 종교에 대하여 냉소적이었고 일반 대중들은 교회의 영향권 밖에 있었습니다. 갈수록 사회 범죄가 성했고, 백성들은 난폭했으며, 감옥은 늘 만원이었습니다. 웨슬리는 타락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회심과 교회 갱신이 필요함을 인식했습니다. 그의 부흥은 당시 영국의 기독교를 고사시켰던 도덕적 타락과 형식주의 및 의식주의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그는 사회문제였던 노예문제와 가진 자들의 착취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함으로써 사회적 성결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운동은 영국을 프랑스와 같은 피의 혁명에서 건져냈으며, 노예해방의 점화선이 되었으며,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리 전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제기한 성도의 만인제사장직을 평신도 훈련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 부흥을 위한 기도

1. 온전한 금식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금식을 권장합니다. 한 끼 금식과 함께 감사헌금으로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용해 봅시다.)

2.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부흥과 야곱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3. 사회적 성결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는 개인성결과 사회성결의 영적 충전소입니다. 성결의 영인 성령님을 사모하며 개인 성결과 사회 성결의 주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금식 기도는 어떻습니까?
2.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열거해 봅시다. 어떻게 보수해야 합니까?
3. 웨슬리의 운동에 비추어 볼 때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오늘 가장 감동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성경공부 · 오순절 성령강림 |

여호와와 신이 임했다

(부흥의 동력)

VISION

-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한다.
-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이 중수된다.
- 고토(故土)에서 배나 얻게 된다.
- 구원의 옷과 의의 겔옷으로 단장된다.

찬양과 경배

여는 기도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자와 같은 귀를 주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 모두 비전과 꿈을 꾸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치유하시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잉태한 것들이 해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61:1-11

외울 말씀 :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1절)

▶ 하나님께 나아감

낡고 보잘 것 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한 사람이 1실링을 부르자 폭소가 나더니 그 값에 건네주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나와 그 바이올린을 쳐자 낡은 악기로부터 절묘한 선율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매혹되었고 경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5파운드”, “10파운드.” 바이올린은 ‘100파운드’로 낙찰되었습니다. 전과 다름없는 바이올린이었는데... 그 낡은 바이올린은 대가에 의해 명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질과 양이 달라졌습니다.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의 부으심에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모든 부흥은 실제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의 반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날 나사렛 회당에서 무리들에게 풀어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 시대가 성령 시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 부흥의 메시지

1. 여호와와 신은 약속 되어졌다(1-3절)

주 여호와와 신이 부어지면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과 같이 성령은 우리들을 보냅니다(cf 요 20:21). 성령은 부흥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자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복음 전도자로 파송됩니다(cf 행 1:8). 파송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과 영을 고쳐 줍니다(1절).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와 은혜의 해(jubilee cf. 레15장)를, 불신자들에게는 신원의 해(보복의 날-the day of vengeance)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들이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요 8:36; 고후 3:17). 이 영은 약속되어졌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눅 24:49; 요 14:26). 기름부음 받은 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2. 여호와와 신은 변화를 일으킨다(3-7)

하나님의 영(靈)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crown of beauty), 재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형편없는 우리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십니다(3절).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성령은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웁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자들에게 여호와와 신이 임하자 그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겔 37:1-6).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모든 일들(예루살렘 재건)이 힘을 얻어 다시 추진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무너진 마음, 가정,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슥 4:6).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을 제사장과 봉사자로 세워줍니다(6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에 손해 난 곳(고토)에서 두 배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7절). 요엘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충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는 말씀(을 2:25)처럼 갑절의 은총이 나타납니다(시편 90:15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년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와 신이 임하면 사명자가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우뚝 우뚝 쓰임 받게 됩니다.

3. 여호와와 신은 복 받은 자손이 되게 한다(8-9)

하나님의 영은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게 만듭니다(9절). 형편없던 이들이 주의 영으로 존귀를 얻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기생이었으나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의 사람 유다지와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라합은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벧을, 오벧은 이새를, 이새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 다윗의 28대손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멸시, 부끄러움 투성인 가문이 가장 존경받고 아름다운 가문이 되었고, 세속적인 가문이 성스러운 가문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영영한 언약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성취됩니다(cf 렘 32:38-42).

4. 여호와와 신은 공의와 구원의 겉옷을 입혀 준다(10-11)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의 영은 큰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이 기쁨은 소유로 인해 발생하지 않고 존재로 인해 얻어집니다. 하박국 말씀처럼 아무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입니다(cf 3:17-18; 사61:10). 이것은 죄 사함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이며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여호와와 신은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옷을 입기 전,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 6:1-7, 스 3:1-5). 이것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함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보화입니다(10절). 주의 영은 각 민족과 국가들 앞에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증거합니다. 주의 영은 아들로 여호와와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11절).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합니다(요 16: 14-15).

역사 속의 부흥 - 오순절부흥 운동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을 때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셨습니다. 어네스트 베이커(Ernest Baker)는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모든 부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존 스토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사에 있었던 첫 번째 종교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삶에 생명이 되기 위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오순절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되었습니다. 모였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성도들에게 임하는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2:2). 성령의 역사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했으며,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했으며,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고(2:37),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2:43). 오순절 사건은 교회를 탄생시켰으며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들을 성도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다. 밖의 위협은 여전했지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사방에 우거 싸임을 당하여도 그들은 싸이지 않았으며 항거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달랐으며 하나님의 큰일에 대하여 주고 받았습니다. 꿈이 없었던 이들이 거룩한 꿈을 꾸었으며 이 꿈들은 많은 이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새 생명과 기쁨, 영적 교제와 예배, 자유와 담대함,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화해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저들은 다른 방언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인종과 언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이끌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운동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생명이었습니다.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게 했습니다. 오순절은 선교의 시발점이 된 날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와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루에도 3천명, 오천 명씩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신자들의 수는 약 120명이었지만(행1:15), 성령이 임한 후에 3,120명으로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사건으로 퍼져 나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싸였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생각했으며 날이면 날마다 모여 기도했고 서로 섬기며 봉사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모든 부흥은 오순절 사건의 재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성령을!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를을 가르시고 강림하사 권능을, 은혜의 해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 부흥을 위한 기도

1.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2.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자가 됩시다.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일으키는 자, 살리는 자가 되도록 구합시다.

3.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각양의 은사를 받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4.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구제하기에 힘씁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와 구제하는 자가 되어 이 시대 작은 밀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2.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까?
3. 오순절 운동이 모든 부흥운동의 열쇠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교회가 함께하는 성경통독의 은혜

1. 목적

성경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통과하자는 것이 통독성회의 목적이다. 그렇게 가슴으로 읽으면서 얻은 은혜는 가슴깊이 새겨져 오래 간직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직접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게 된다.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신다.

2. 일반적인 유익과 유의사항

1) 목회자가 따로 준비할 것이 없기에 목회자의 부담이 없다. 다만 성경통독성회의 본이 되는 참가자가 되도록 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기도록 준비한다.

2) 육체적으로 대단히 피곤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 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3) 목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해석하지 말고 설교하려고 들지 말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앉아 듣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남에게만 적용시켰지 자신은 정작 그 말씀을 비켜 갔던 것이 사실이다. 나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에 늘 설교를 염두에 두고 읽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수고 낮아지게 하시고 싸매주시는 경험을 적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성경통독성회를 통해 목사인 나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4)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양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인데 그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성경통독 성회를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져 영성적인 분위기가 되었고 참여한 사람들이 뿌듯한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참여 못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되었다.

6) 1년에 2회, 봄, 가을로 행하는 것도 좋겠다. 특별히 웨슬리 회심주간에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과 함께 회심을 체험한 웨슬리를 기억하며 실시한다면 더 뜻 깊겠다.

3. 구체적인 준비

1) 현수막제작 : 교회 밖과 통독성회로 모일 실내의 전면 배너, 또는 현수막 제작

2) 통독자 선정 : 교회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0~15명 정도의 읽기에 능숙한 사람들

미리 선정하여 준비하게 한다.

- 3) 통독책상, 독서대, 마이크, 스텐드, 방석, 현금바구니, 사각티슈(은혜의 시간을 위해 필요)
- 4) 식사(친교실), 간식과 차(안내석)
- 5) 기념품(개역개정판성경찬송합본, 표준새번역성경 등 성경책으로 하면 좋겠다),
- 6) 스티커제작

4. 진행

1) Prologue -성경을 열기 전에 성경에 대한 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만 가능하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계시여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계시가 곧 성경이다.

②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득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본회퍼는 “성경 밖의 어떤 증거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책이 결코 아니다.” 성경 안에서만 성경이 성경됨을 나타내주신다는 사실.

③ 성경내용을 골라 읽으면 안 된다. 성경에 칼질해선 안 된다. 입맛이 다르지만 입은 하나다.

④ 성경이 가는데 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타락한 천사 이야기 등) 성경이 가는데 까지 가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⑤ 성경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조개뿐 아니라 깊은 곳의 전복도 따라 한다.

⑥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해 주심으로 깨달아지는 책이 성경책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 성령의 통곡케 하심을 기대한다.

⑦ 제단 앞에 나와 읽는 사람과 앉아 있는 회중 모두가 생명을 걸고 읽자, 자아를 내려놓으면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성도는 자유롭게 쉬는 시간에 강단에 감사헌금을 드리도록 한다.

2) 진행방법

① 자기 성경으로 읽는다.

② 장이 끝나면 “아멘, 00장” 소리친다.

③ 책이 끝나면 “할렐루야*3, 다음책 이름 (00000) 1장”을 손들고 외친다.

④ 한사람이 대개 3-5장정도 통독하며, “다음 분 준비해 주세요”하고 신호하면 다음 통독자가 나와서 준비한다.

⑤ 눈이 읽는 속도에 미칠 만큼 빠른 속도로 읽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빨리 읽자.

⑥ 하나님께 기도, 감사제목이 있는 분은 자유롭게 감사헌금을 한다.

3) 시간진행(통독 11시간, 식사 1시간, 총12시간)

오전 9시-12시30분 : 구약 오후 1시-6시30분 : 구약 저녁 7시-9시 : 신약

12시30분-1시 : 점심식사 6시30분-7시 : 저녁식사

① 쉬는 시간은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② 성경은 총 1189장/5일=240장(1일)/55시간으로 분배하면 3분에 한 장씩 읽어야 한다.

③ 시편은 1인당 3편씩 읽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5. 성경통독성회 설교문

성경 통독 성회로!

느헤미야 8:1-12, 사도행전 17:10-15

프랑스 사람들은 유행인가를 묻습니다. 미국인은 실용적인가를 묻고 독일인은 과학적이냐고 묻고 일본인은 작은 것이냐를 한국 사람은 진짜냐고 또는 공짜냐고 묻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신사적이냐를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랴 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맞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완악하고 때를 지어 다니고 소동하는 모습이었으나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신사적이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통독성회를 한 주간동안 열고자합니다. 신사적인 교회의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통독 성회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시기로 주전 445년 10월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한 뒤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6장15절로 19절에 보면 성벽공사가 완성되었고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끝난 것을 감사하고 성벽을 쌓고 나니 그 안에서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할일은 성문을 지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는 고생스러웠던 포로 생활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봉헌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에스라가 낭독할 때에 지도자들이 강단에 함께 서 있음은 율법낭독의 중요성을 보여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으나 율법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서 낭독은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백성이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본문 8절에 언급된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통역을 해준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 우리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함으로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귀하니 간절함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고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초만원 극장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이 넘어져 발에 밟혀 죽게 될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분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중은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웃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스며들어 오고 불길 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고 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 말씀대로 무너뜨렸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시몬은 만선의 기쁨과 놀라움을 맛보았습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에 말씀이 낭독될 때에 모두 일어섰습니다. 마음의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 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음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하셨으며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된다고 시편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링컨이 아홉 살 때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가 남긴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아들아,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 그 말씀을 따라 링컨은 가장 성경적인 신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의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카루소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유일한 그의 후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대로 따라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이며 사명의 삶입니다. 영국 수상 존 메이저는 앞선 수상들과는 달리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하여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지연금으로 살기도 하고 은행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커스 단원이었던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살아 결국에는 수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첫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둘째 열심히 살라 셋째 단순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간절함으로 듣는 믿음의 신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큰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과 행위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통회 자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쳐서 내가 어이 할꼬 마음이 찢려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고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입맛대로 골라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 까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서입니까? 원통해서입니까? 여기서 백성이 운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허술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울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는 말씀 속에서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을 외면 할 만큼 잘났냐? 저는 그 말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검이 되었습니다.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고 하니 삼천 명이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곡하는 감동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심령으로 새로워지고 변화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오벰에돔에 있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다가 다윗성을 짓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율법궤를 모셔옵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베레스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궤궤를 만져 죽고 말았습니다. 베레스 옷사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를 운반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베레스가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베레스 옷사당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차 시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 고탓 족속을 성결케 하고 철저한 준비 끝에 궤궤를 운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성에 오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 곧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쟁의 승리보다, 재물의 증가보다, 농사의 풍성한 결실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체험해서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와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대상16:10절)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니라(29-31절)’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인한 기쁨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이 낭독되는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중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행복해 하고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1년에서 1990년까지 90년간 물리,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404명이라고 합니다. 평화상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만 있으면 받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도 상관 없지만 물리, 화학, 의학은 머리가 뛰어나야 합니다. 404명의 종교를 분석하면 기독교 65%, 유대교 22%, 천주교 11%, 불교 0.9%, 회교 0.1%입니다. 유대교를 비롯하여 기독교, 천주교를 합하면 98%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두뇌가 좋아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받은 나라를 꼽아보면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으로 모두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으로 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 정착해 살면서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구소련이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비슷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구소련의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를 믿는 나라가 선진 국가이며 경제 부강 국가이며 노벨상 수상국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축복을 받고 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며 간절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성회로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대가 큼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령골수를 쫓개실 것입니다. 통곡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는 신앙의 신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Beyond 1907 영적대각성 회개문

마태복음 26:74-75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도행전 2:38-39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2000년전 오순절 성령강림을 경험한 제자들,

100년전 성령의 대부흥의 감격 속에 변화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곡하게 했던 닭울음소리처럼

이 회개기도문을 시작으로

2007년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통회가 일어나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대부흥의 물결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교회 필요에 따라 소책자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시51:12)

2.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시18:27)

3.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한 작은 수고도 번거롭게 여기며 고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희생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4.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들로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에 힘쓰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5.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오히려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전도를 제일 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6.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4:3)

7.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시간을 소홀히 여겨 지각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열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레22:20)

8.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정성과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3-24)

9.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분의 일도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10. 하나님께 예배하고 쉼을 얻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나 개인의 일을 우선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20:8)

11.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기 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

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마 5:13-14)

12.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에 빠져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 하였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과 결단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다(시34:18)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18:13-14)

13.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고 의심하며 믿음이 없어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막9:24)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14.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한 삶을 살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불평하며 절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요일 2:28-29)

15.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여기며 은밀한 죄를 즐겼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내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시 139:7-8)

16. 바리새인처럼 남보다 나를 의롭게 여기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남을 이해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23:27)

17. 복음을 외치는 노방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러워하며 비난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18.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 내 이웃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질서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롬13:3)

19. 이웃이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물어주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위로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

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1:4)

20. 하나님 앞에서 성결치 못하고 음란의 유혹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8)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살전4:3)

21. 이웃과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12:15)

22.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천국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3:14)

23.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선으로 가르치지 않고 학교 성적을 우상 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4-5)

24.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3:21)

25. 부모님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일

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23:25)

26.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인색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잠23:22)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15:5-6)

27.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무익한 종이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에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6:2-4)

28. TV와 인터넷, 달콤한 세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29.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눈과 영혼이 어두워져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신15:11)

30. 외모 지상주의를 따라 얼짱, 몸짱이 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허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17)

31. 직장이나 매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대하듯 친절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32. 땀 흘려 수고해 얻은 소득을 감사하기 보다는 일확천금을 기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땀 흘리지 않은 소득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살후3:10)

33. 천국을 소망하기보다 이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천국에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눅12:19-20)

34. 순간의 불리함을 모면하기 위해 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진실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계21:27)

35. 개인의 편한 삶을 위해 출산의 가치를 외면하였

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소중한 생명을 주님 뜻 안에서 출산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127:3)

36. 이웃에게 화를 내고 험담한 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입술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5:22)

37. 이웃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주장을 앞세우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약1:19)

38. 이웃과의 금전적인 거래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서로 속이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레25:17)

39. 나를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었던 이웃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갚으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롬12:19-20)

40.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끊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8)

41.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기부하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막 10:21)

42.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6:10-11)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5:16)

43. 장애우의 불편을 외면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장애우의 불편에 공감하며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7:22)
베드로가 가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행3:6)

44.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하여 이루어놓은 민주화와 경제적 풍요에만 안주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성도의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24)

45. 나라의 지도자들이 흔들릴 때 기도로 돕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영적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의 정하신 바라(롬13:1)

46.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기며 주어진 한 표의 권리를 쉽게 포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47. 억압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북한 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시107:13)

48.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와 중보기도에 둔감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8-19)

49.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아픔을 당하는 민족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롬3:29)

50. 30만명 정도의 빈곤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18:5)

51. 대안 없는 교육 현실에 불평과 비난으로 일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교육계의 아픔을 품고 기

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10)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29:15)

52. 학원 폭력, 왕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마19:14)

53.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소홀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54.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정직을 추구하는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수7:2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행5:1-2)

55. 이 땅에 늘어나는 강력범죄와 흉악범죄의 원인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

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렘14:20-21)

56.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로움과 열악한 삶의 환경을 외면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외국인도 형제처럼 대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던음이니라(출22:21)

57. 자살과 낙태, 인간복제 등 생명경시 풍조에 물들어 이로 인한 온갖 범죄를 묵인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2:7)

58. 기아와 가난과 차별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나라들의 아픔에 무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5:7)

59.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에4:16)

60.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1:22-23)

“웨슬리 영성 독서운동을 제안합니다”

18세기 영국사회에서는 “감리교인과 단 5분만 대화를 해 보라. 너도 감리교인이 되고 말 것이다.”하는 말이 퍼졌다. 감리교인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언어와 생활 습관과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먼저 인간의 마음이 개혁-성화되면 그 언어가 성화(聖化)되고 곧 이어 사회생활이 성화된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한마디로 성화(聖化)운동이었다. 즉, 인간의 마음과 언어와 생활 그리고 사회와 민족과 인류를 성화하려는 기독교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존 웨슬리의 영성의 핵심이었다. 존 웨슬리의 성화의 영성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철저한 독서지도와 기도생활 등 경건의 훈련에서 비롯되었다.

‘책의 사람’ 또는 ‘성경좀벌레’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는 사람이었지만, 존 웨슬리는 비단 성경과 신학에 관한 책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고, 읽은 것들을 자신의 신학 저술과 설교에 많이 인용하였다.

“웨슬리는 크라이스트처치 대학 5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그 후 존 웨슬리가 메도디스트 설교자들과 모든 메도디스트들의 경건한 독서를 위하여 1750년에 출판한 「기독교문고」(Christian Library, 전50권)에는 약 200여 권의 책이 실려 있다. 이것은 모두 존 웨슬리가 직접 요약하고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존 웨슬리는 일생 약 1,000여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의 회심 역시, 루터의 책「로마서 주석」 읽는 것을 듣다가 일어난 역사였다.

존 웨슬리의 독서는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경건이 목적이었다.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존 웨슬리는 독서를 경건의 방편이요 일종의 실천신학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 책이나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 계획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읽었다. 메도디스트 설교자들에게도 성경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폭넓은 독서를 하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밝게 비추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와 독서를 통한 학식이 그를 위대한 신학자, 영성가, 설교가, 개혁가로 만들었다.”(『존 웨슬리의 생애』, 김진두, 도서출판 kmc)

영적 성장을 위한 독서는 평신도 목회자 모두에게 일생 동안 꾸준히 힘써야 할 영성훈련의 한 과정이다. 듣는 말씀의 역사는 잠시다. 스스로 깨우쳐 얻은 은혜야말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영적인 성장, 곧 우리가 이 땅에 온 참다운 이유를 알게 할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책 읽는 신앙인을 키워야 한다. 연령별로 매년의 독서계획을 제시하고, 매월 신간을 소개하고, 교회 형편에 따라 도서실을 운영하고, 교회 안에 독서클럽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웨슬리 영성 독서운동’을 제안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다양한 ‘존 웨슬리 총서’를 통해 존 웨슬리의 삶을 본받아 개인적인 영적 성숙과 더불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웨슬리안이 되기를 바란다.

■ 도서출판KMC ‘존 웨슬리 총서’ 목록

웨슬리의 뿌리

김진두 지음 | 신국판 224쪽 | 9,000원

타락과 부패로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웨슬리 형제의 선조들의 경건과 삶에 관하여 쉽고 재미있게 쓴 역사 이야기다. 웨슬리 형제의 아버지 사무엘과 어머니 수산나의 삶과 사랑, 학문과 신앙, 가정생활과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이 흥미를 끈다.

존 웨슬리의 생애

김진두 지음 | 신국판 472쪽 | 18,000원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존 웨슬리의 생애 이야기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인류를 위한 진리의 사도요, 성결과 사랑의 성자요, 행복의 교사”인 존 웨슬리의 삶을 통해 메도디스트 역사와 신앙 전통과 신학사상을 엿볼 수 있다.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권희순 지음 | 국판 232쪽 | 9,500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은총의 수단을 근거로 성화훈련과 영적 성숙을 꾀하는 영성수련 지침서다. 영성수련의 개념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웨슬리 영성수련의 이론을 소개한다. 웨슬리의 ‘구원의 질서’ 단계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성수련 7주 집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진으로 따라가는 존 웨슬리

김영선 지음 | 4·6배판 변형 율령러 208쪽 | 20,000원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의 전 생애를 관련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소개한다. 목회자와 신학생은 물론 평신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 책은 일생 동안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였던 존 웨슬리의 노력, 고뇌, 좌절, 그리고 승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웨슬리안 리더십

러벳 H. 워즈 지음 | 원종국 옮김 | 신국판 양장 200쪽 | 10,000원

미 연합감리교회의 교회 리더십에 관한 탁월한 전문가 러벳 워즈 박사가 웨슬리안 영성과 전통에 나타난 리더십을 소개한다. 웨슬리안 영성에서 본 리더십의 원칙과 실제, 그리고 그 안에서 찾게 되는 웨슬리의 열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모델을 제공한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순례

김홍기 지음 | 신국판 184쪽 | 7,000원

복음주의적인 신학의 기초에서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알기 쉽게 풀이한 평신도 영성훈련 교재다. 곁들인 화보들이 그 이해를 돕는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주장한 웨슬리의 신학은 영적 성숙을 갈망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새로운 창조

T.러너 지음 | 김고광 옮김 | 신국판 444쪽 | 9,000원

러너 박사는 2세기 반 동안 감리교회의 사회적 증거에 대해 웨슬리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인권, 빈곤, 여성의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오늘의 이슈와 종교적 다원 사회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살펴본다. 존 웨슬리의 위대한 구원은 개인에서 출발했지만 사회적 인 모든 인간 실존의 차원을 변혁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임을 발견하게 된다.

웨슬리 신학 다시 보기

랜디 맥덕스 엮음 | 이후정 옮김 | 신국판 310쪽 | 9,000원

이 책은 감리교회의 삶에 웨슬리 사상이 미친 영향과 역할을 설명하고, 그의 사상을 현대에 비추어 소개한다. 5대륙의 저자들이 웨슬리의 사상을 광범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 준다.

은총과 책임

존 B.갑 지음 | 심광섭 옮김 | 신국판 256쪽 | 6,000원

이 책은 웨슬리 신학을 과정신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감리교회가 어떻게 그 과거를 되찾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다. 오늘의 웨슬리안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에 내포된 요소들을 설명함으로써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분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결단하게 한다.

존 웨슬리의 일기(개정판)

존 웨슬리 지음 | 나원용 옮김 | 신국판 400쪽 | 15,000원

존 웨슬리에 관한 수많은 책이 있었지만 그 자신이 쓴 일기만큼 존 웨슬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 사회까지 변화시켰던 한 위대한 전도자의 복음에 대한 확신, 끊임없는 전도 열정, 인간에 대한 애정 등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감리교회사

김홍기 지음 | 신국판 550쪽 | 20,000원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영국감리교회의 특징을 밝히고, 애즈베리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감독감리교회의 특징을 지적한다. 나아가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을 다룸으로써 한국감리교회의 선교신학적 배경을 알리고 있다.

웨슬리 형제의 성만찬 찬송

존 웨슬리 · 찰스 웨슬리 지음 | 나형석 옮김 | 신국판 236쪽 | 9,000원

웨슬리 형제의 성찬찬송은 부흥찬송이었다. 이 성찬찬송 안에는 구원받은 자의 환희와 기쁨이 배어 있다. 성서적 · 신학적 · 체험적 함의들이 녹아든 이 풍성한 성찬자료가 성찬영성의 재발견이라는 21세기 한국 교회의 예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찬으로의 초대

나형석 지음 | 신국판 210쪽 | 9,000원

웨슬리 찬송시는 시적 신학과 음악적 신학이라는 감리교 영성과 신학의 형태를 결정해 왔다. 이 책은 웨슬리 찬송시를 소개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만찬 찬송이 제공하는 성서적 · 신학적 언어와 이미지를 수용하여 실제 성찬 초대를 위한 200편의 예문을 소개한다.

존 웨슬리

랄프 월러 지음 | 강병훈 옮김 | 신국판 246쪽 | 9,500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존 웨슬리가 다시 왔다!”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사람, 넘치는 에너지와 단호한 의지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의무감을 지닌 위대한 한 사람, 그가 바로 존 웨슬리다. 영국 감리교회가 존 웨슬리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삶과 신학을 재조명한 책이다.

웨슬리의 실천신학(개정판)

김진두 지음 | 신국판 418쪽 | 15,000원

이 책은 웨슬리와 초기 메도디스트들의 기도 · 성경탐구 · 금식, 영적 독서, 예배, 세례, 성만찬 애찬회, 계약 예배, 철야기도회, 신성회, 신도회, 속회와 반회, 설교와 전도, 찬송 등 메도디스트들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생생한 역사를 감동적으로 소개한다.

웨슬리 신학과 오늘의 교회

협성신학연구소 편 | 신국판 262쪽 | 6,000원

21세기는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다. 협성대학교 신학부 교수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윤리신학, 설교학, 선교신학, 목회신학, 기독교 교육)별로 존 웨슬리의 신학을 재조명하였다. 이 책은 진정한 복음주의의 길을 보여 주는 목회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웨슬레 신학의 본질

폴A. 믹키 지음 | 조은철 옮김 | 132쪽 | 1,500원

1972년 미 연합감리교회(UMC)는 복음주의 형제교회와 통합하면서 두 교회의 신앙과 신학 전통을 종합하여 신앙선언을 하였다. 이 책은 이 신앙선언을 해설해 놓은 것으로 대체로 전통과 경험을 두 기둥으로 하는 웨슬리안의 신앙을 강조한다. 주로 삼위일체론, 인간, 교회, 성경, 구원, 윤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웨슬리와 성화

H.린드스트럼 지음 | 전종옥 옮김 | 신국판 248쪽 | 4,000원

세속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책은 웨슬리 사상과 생활 핵심인 성화 문제를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다루고 있다. 성화야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참된 길이다. 이 책은 우리의 생활이 성화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존 웨슬리 지음 | 마경일 옮김 | 신국판 402쪽 | 12,000원

평생 동안 4만여 회의 설교를 한 존 웨슬리의 대표적인 설교 44편이 담긴 '표준 설교집'의 한글판이다. 웨슬리는 이 설교문에 기독교의 전체 원리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종교의 본질을 확실히 알 것이라 하였다.

새로운 탄생

존 웨슬리 지음 | 이계준 옮김 | 신국판 384쪽 | 10,000원

웨슬리의 설교는 영국의 교회와 사회에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말씀을 들은 대중은 악습과 부도덕에서 벗어나 새사람이 되었다. 도덕적 파산 상태였던 영국을 구원한 웨슬리의 설교를 살피는 일은 역사 의식을 지닌 목회자들에게 필수 과제일 것이다.

존 웨슬리 생애와 사상

노로 요시오 지음 | 김덕순 옮김 | 신국판 683쪽 | 10,000원

평생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 노로 요시오는 아시아인의 신앙 통찰력으로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구원 확증, 선행 은총, 신인 협력, 자유의 지론, 완전, 성화들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존 웨슬리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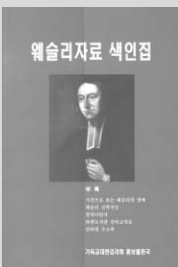
알프레드 H. 버디 지음 | 장종철, 주신자 옮김 | 신국판 144쪽 | 3,000원

놀라운 명성과 성공을 거둔 킹스우드 학교 출신이면서 교육 전문가인 저자가 웨슬리의 교육 목적, 교육 내용, 커리큘럼, 교육 방법, 교육 환경, 웨슬리의 이상적 교육 실천에 대해 평가한 책이다. 위대한 교육 실천가로서의 웨슬리의 면모, 그의 교육 이상과 실천을 담은 이 책은 독자들과 오늘의 기독교 교육 현실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소설 존 웨슬리

이성덕 지음 | 신국판 228쪽 | 6,800원

존 웨슬리의 생애가 입체감 넘치는 소설로 재탄생하였다. 존 웨슬리가 선교에 대한 열망을 안고 신대륙 조지아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읽어가다 보면 그 어떤 소설 주인공보다도 많은 사연을 갖고 있었던 존 웨슬리의 치열한 일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웨슬리자료 색인집

편집실 엮음 | 신국판 214쪽 | 5,000원

국내외 모든 학교와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록한 책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검색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3부

“신실한 사람들”의 고백과 실천

‘웨슬리 영성이란 무엇인가?’

존 웨슬리 영성프로그램

신실한 사람들, 감리교회의 세 가지 약속(선언용)

영적각성운동 실천 사례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생활

1. 웨슬리 전통에서 영성의 의미

웨슬리가 이해하고 가르친 기독교 영성의 의미는 그의 완전성화론과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성화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됨(Christlikeness)이다.” 라고 말 한다. 웨슬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그리스도 모방(imitation of Christ)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메도디스트의 성격을 설명하는 글에서 “메도디스트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모방하는 사람들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정의와 자비와 진리와 우주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삶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영혼을 조종하는 거룩한 습관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성결과 정의와 자비와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는 것이요, 모든 거룩한 기질과 하늘나라 성품을 소유하고 우리의 거룩하신 구주의 모범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웨슬리에게서 영성이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모방이다. 이것은 완전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웨슬리의 완전성화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모든 죄악을 피하고 소멸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다. 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메도디스트란 자기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하고 쉽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웨슬리에게서 완전성화는 이와 같이 ‘사랑에 의하여 완전케 되는 믿음’을 의미한다. 메도디스트 완전성화의 영성은 수많은 찰스 웨슬리의 찬송에 감동적으로 표현되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통치하소서
당신만이 내 마음에 살으소서
내속의 모든 생각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차

주님처럼 의롭고 순전하게 만드소서

당신의 이름 내 맘에 새기소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랑의 이름
천사들처럼 당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완전한 사랑 이루기까지

당신의 새 창조 완성하소서
우리가 순결하여 흠이 없도록
당신의 위대한 구원 보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완전히 이루소서
사랑으로 나를 완전케 하소서

웨슬리는 그리스도교의 참된 영성이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formation of Christian heart and life)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아무리 정통 신앙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형성에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은 거짓된 신앙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의 형성에 충실하고 유익한 신앙만이 정통의 신앙이라고 주장한다.

2. 메도디스트 영성생활

웨슬리는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경건의 행위)과 둘째는 사랑의 실천(자비의 행위)이다.

1) 경건의 훈련(경건의 행위; works of piety)

경건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는데, 즉 그리스도인 형성(Christian formation)에 필수적이다. 경건의 행위란 신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 자기성찰, 성경 탐구(searching the scripture), 가족기도회, 공중예배, 성만찬, 금식, 성도의 교제(Christian conference; 신도회, 속회, 반회),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애찬회, 편지의 날, 영적 독서, 계약예배 등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한국 감리교인들이 꼭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해야하는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매일 규칙적인 기도와 매일 규칙적인 자기성찰

웨슬리는 매일 여섯 번 기도와 자기성찰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였다. 물론 그날그날의 일에 따라서 6회의 기도는 못할 수도 있었고 시간이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대체로 6회의 규칙적인 기도를 하였다. 6회의 기도는 아침 4-5시와 저녁 9시-10시,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6시, 9-10시였다. 웨슬리는 모든 메도디스트들이 이와 같이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인 기도와 자기성찰을 하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한 중간에 짧은 기도 시간을 갖도록 훈련시켰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촉구하였다. 매일 규칙적인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영성생활의 출발이요 기본이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초기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의 한 가지 특징은 기도와 자기성찰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생활에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완전성화를 이루려는 열망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메도디스트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이다. 규칙적인 기도와 자기성찰은 마귀의 유혹에 틈을 주지 않고 신자들에게도 죄지를 틈을 주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수적인 일이었다.

(2) 매일 중보기도

메도디스트 기도는 성화를 위한 기도와 중보기도에서 그 장점이 잘 나타난다. 이것은 메도디스트들이 속회와 같은 작은 모임 영성훈련에 충실하였기 때문이었다.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며 서로를 지켜주는(watch over)” 영적인 협동이었다. 또한 메도디스트 기도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사랑의 기도와 인류를 위한 박애운동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한국 감리교회는 매주일 주보나 신문이나 하늘양식에 감리교인의 중보기도를 실릴 수도 있겠다.

(3) 메도디스트 기도집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을 위하여 세 가지 기도집, 즉 개인 기도집, 가족 기도집, 어린이 기도집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메도디스트 기도집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매일 아침 기도와 매일 저녁 기도가 실려 있으며, 개인 기도집에는 매일 자기성찰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도집들은 웨슬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셀 수 없이 출판되어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을 위한 실천 신학으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기도로 형성되는 것이며, 기도문 속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의 기도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와 같이 거룩하고 모범적인 기도문은 역사적으로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다.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영국교회의 ‘공동기도서’를 통해서 기도생활을 했으며, 평생토록 ‘공동기도서’를 애용하였다. 웨슬리는 기도문 없는 자유로운 기도도 잘 했고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잘 하였다. 그는 두 가지 기도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메도디스트들에게 가르쳤다. 한국 감리교회는 이와 같은 기도집을 만들거나 감리교인의 매일 가정 예배서인 ‘하늘 양식’에 기도와 자기성찰을 수록할 수도 있겠다.

(4) 가족 기도회

가족기도회는 본래 청교도의 강력한 전통이었는데, 수산나 웨슬리가 엽윗에서 실천하였으며, 이것을 웨슬리가 메도디스트 경건생활에 적극적으로 모방하였다. 당시 영국교회는 성직자들 중에도 가족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는데, 거의 모든 메도디스트는 매일 가족기도회를 실천하였다. 그래서 가족기도회는 가정의 성화를 이루는 중대한 방편이었다. 가족기도회는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 중심이 되는 전통이다.

(5) 성경 탐구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에게 언제나 성경책을 네 손이 닿는 곳에 두라고 가르쳤다. 그는 성경을 읽는 것을 탐구하는(searching)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경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웨슬리는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한 분량을 차례대로 읽되 자주 멈추어 그 의미를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실천하면서 읽으라고 가르쳤다.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는 감리교인들의 일치된 성경 탐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6) 영적 독서

웨슬리는 성경 좀벌레였으며, 독서광이었다. 일생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그는 무학 무지한 메도디스트들을 독서운동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으로 교육시켰다. 영적 독서는 메도디스트들이 영국을 개혁하고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웨슬리는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으나 독서운동을 통하여 설교자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길러냈다. 웨슬리는 메도디스트 필독서를 제정하여 읽게 하였다. 필독서 중에는 성자들의 생애(life)가 많았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성자들(saints)의 생애야말로 살아있는 교리요 메도디스트 교리의 생생한 표준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영적 독서는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 대단히 중심에 자리한다.

(7) 매주 금요일 금식

웨슬리는 신성회(Holy Club)에서 시작하여 일평생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였다. 웨슬리 사후에는 메도디스트들이 금요일만 금식하여 금요일은 메도디스트 금식일로 오랫동안 실천되었다. 그는 금식의 목적 6 가지를 가르쳤다.

- 죄를 슬퍼함- 회개
- 육체의 정욕을 죽임- 자기포기, 자기부정
- 전적인 순종
- 더 깊고 간절한 기도
- 이웃의 고난에 동참
- 신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금식은 오로지 기도 응답과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대거나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 아니다. 웨슬리에게서 금식은 선행과 성화의 방편이요 영성 훈련이다. 웨슬리는 금식을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 필수적인 일로 정하여 실천하였다.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라 메도디스트들은 금식헌금을 모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도왔다.

(8) 규칙적인 성만찬

웨슬리는 열성적인 성만찬 경건주의자였다. 그의 영성은 성만찬적 영성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메도디스트들에게 매주일 규칙적으로 모든 가능한 기회에 성만찬을 받으라고 촉구하였으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지칠줄 모르고 가르쳤다. 성만찬은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공급하는 위대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성만찬을 신자의 칭의와 확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화의 훈련으로 사용하였다. 메도디스트 영성 성례전적 영성이다.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은 성만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웨슬리는 개신교회가 범하기 쉬운 설교 중심의 기형적인 영성을 피하고 말씀과 성례전이 조화된 온전한 영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그렇게 하여 메도디스트 신도회를 성례전적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이다.

(9) 고백적 영성훈련을 통한 성화의 장으로서 속회

메도디스트 속회의 제일 목적은 성경공부나 전도나 교회성장이 아니라 영적 고백과 영적 나눔을 통한 영성생활 훈련이다. 속회는 영성훈련의 장이요 성화의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공과 중심의 속회를 속히 그치고 한 주간의 영적인 삶의 경험을 함께 고백하고 서로 교정하고 지원하고 나누는 성화의 훈련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속회의 진정한 공과는 속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다.

(10) 규칙적인 자기성찰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 자기성찰의 기도를 하였다. 자기성찰(self examination)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세계와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한 필수적인 경건의 행위이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학생 때에 자기성찰의 주제와 일람표를 만들어 자신의 영성생활에 철저히 적용하였다. 그는 매일 정해진 주제와 규칙에 따라서 매일 저녁 자기성찰을 실천하였다. 그는 '메토디스 매일 기도집'에도 매일 기도에 자기성찰 일람표를 달아 놓아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서 자기성찰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이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에 집중하였다면, 또는 자기들의 교회나 신앙공동체의 부흥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결코 이루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웨슬리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였다. 그들은 자기성찰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들의 삶에서 모든 악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소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나고 이웃과 사회에 해로운 것을 분별하여 버릴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성찰의 기도에 집중하였다.

메도디스트란 매일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holiness of heart and life)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성찰의 기도가 없이는 진실한 신앙도 없고 경건도 영성도 성화도 없는 것이다. 한국 감리교회도 웨슬리 전통의 영성생활을 회복하려면 교인들에게 자기성찰의 기도 훈련을 시켜야만 한다. 자기성찰의 주제와 표와 규칙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성찰은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 필수적이며 중심에 있어야 한다.

2) 사랑의 실천(자비의 행위; works of mercy)

웨슬리는 어느 특정 교파나 교리나 신학에 매어 달리지 않았으며, 일생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진정한 기독교’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정통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 아무리 정통의 교리와 정통의 믿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랑과 선행을 반대하거나 낳지 못하는 것이라면 거절된 교리 또는 거절된 믿음이라고 비판하였다. 웨슬리에게서 믿음은 사랑을 위하여 사랑은 선행을 위하여 선행은 성결을 위하여 성결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믿음은 목적 아니라 방편이요 통로요 길이다. 그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며, 그러나 사랑과 선행을 낳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줄기차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서 정통의 믿음은 ‘사랑을 낳는 믿음’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찬 믿음’이다.

웨슬리는 신자의 영성생활을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였다. 두 번째 자비의 행위는 곧 사랑의 실천이요 선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자비의 행위는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과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어둠과 무지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권하여 생명과 빛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전도와 교육과 상담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와 교육과 상담의 일도 자비의 행위로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둘째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먹이면서 입히면서 치료하면서 가르치면서 돌보면서 전도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자비의 행위는 사실상 적극적인 의미에서 실천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가 할 수 있으며, 꼭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선을 행하는 감리교인

초기 메도디스트들에 대한 별명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행자들’ (good doers)이라는 것이다. 메도디스트들이 사회 모든 면에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

는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선행자들’이라고 불렀다. 감리교인들이 영국을 구원한 것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만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다하여 자비의 행위를 펼쳐서 열심히 많은 선을 행함으로 된 것이다. ‘선행자들’이라는 이름은 사회에 비친 메도디스트에 대한 분명하고 강한 이미지였다. 당시 메도디스트 신도회는 기도처와 예배당인 동시에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집이었다. 그 곳은 상담소, 직업 안내소, 탁아소, 학교, 약국, 병원, 쉼터, 집없는 사람들과 나그네들의 안식처, 고아들의 집, 과부의 집, 장애인들의 집, 노동자들의 쉼터와 도움의 집이었다.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에게 자신이 지키는 선행의 규칙을 주어 따르게 하였다.

메도디스트 선행 규칙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

(2) 정직한 감리교인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모든 악을 피하였다. 그들은 일체 남에게 해롭고 사회에 악이 되는 것을 피하였다. 그들은 사회의 불의와 부정, 사치와 방종, 비도덕이고 불건전한 오락을 피하고 반대하였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였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고아와 과부들, 집 없는 사람들, 병자들, 노동자들을 위하여 선행에 최선을 다 하였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예법을 충실히 지키었다. 주일 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 그리고 교회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었다. 웨슬리 시대에 메도디스트들은 사회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요 사회와 나라의 가장 분명하고 큰 희망이었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영국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로 인정되었다.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에게 모든 사회생활에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산업혁명이 발발 하던 시대와 도시에서 모든 상거래는 부정부패와 거짓이 난무하였으나 메도디스트들은 모든 산업 활동과 상행위에서 일체 거짓말하지 않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산업지대에서 고용주들은 메도디스트들을 신뢰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를 좋아하였고 승진에서도 우대하

였다. 메도디스트들은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들은 사회와 국가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모든 세금을 정확하게 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시간과 약속을 조금도 틀림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메도디스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하여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부흥운동 처음에는 핍박을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정직한 감리교인’(honest methodist)은 초기 메도디스트들의 신앙이며 동시에 생활이었다. 그것은 메도디스트들의 복되고 영광스런 이름이었다.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부흥운동이 시작된 지 약 30년이 지났을 때부터 영국 사람들은 메도디스트들에게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메도디스트들이 없으면 안 된다. 메도디스트들이 우리의 희망이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영국 사회 어디서나 ‘신실한 사람들’ 이요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인정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3) 많이 주는 감리교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슬리는 선행을 위한 세 가지 경제생활 규칙을 만들어 메도디스트들을 가르쳤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여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만 메도디스트들에게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세계 기독교와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위대한 영향을 주었다.

선을 행하려면 많이 주는 생활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선을 행하기란 어렵다. 초기 메도디스트들 중에는 십일조만 아니라 십의 이조와 십의 삼조와 그 이상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는 삶’은 메도디스트 실천적 영성의 기본이다.

(4) 규칙적으로 주는 감리교인

초기 메도디스트 표어 중에 “청의, 성화, 일주일에 일 페니”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메도디스트 신앙생활을 가장 짧게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일 페니는 현재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천원이 될 수도 있고 만원이 될 수도 있다. 초기 감리교인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일 페니를 이웃에게 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선행을 보였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이 운동으로 영국 사회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운동으로 많은 고아원, 장애인 집, 노인의 집, 병원, 학교, 나그네 공동체들이 지어졌고 운영되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일주일에 천원” 또는 “일주일에 만원” 주기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웨슬리 영성의 목표

1) 개인의 성화

웨슬리 영성은 분명한 목표를 지향한다. 그는 우선 개인의 성화를 추구하였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 영성운동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자연적인 목표이다. 먼저 신자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이것을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 (holiness of heart and life)라고 표현하였다. 메도디스트들은 마음과 삶의 성화와 완전성화를 얻기 위하여 규칙적이고 열성적인 영성훈련에 참여하였다. 성화는 메도디스트 영성훈련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웨슬리는 지칠 줄 모르고 “성결이 행복이다” (Holiness is happiness)고 가르쳤으며, 메도디스트들은 성화, 즉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 한국 감리교회도 이러한 성화 신앙 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

2) 가정의 성화

당시 18세기 영국 사회가 부패하고 멸망의 위기까지 간 것은 가정의 타락과 파괴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웨슬리의 영성운동의 중요한 목표는 이러한 더럽혀진 가정의 성화였던 것이다. 그래서 메도디스트들에게 가족기도회를 매일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웨슬리는 가정의 파괴와 불행이 곧 사회의 파괴와 불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가정 목회를 성실히 한 목사였다. 그는 가난하고 문제 많은 신자들의 가정을 열심히 심방하고 상담하고 도왔다. 메도디스트 신앙이 부흥하는 곳에서는 불성실한 남편들이 성실한 남편들로 변하고 부도덕한 아내들이 도덕적인 아내들로 변하고 집나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붕괴된 가정들이 회복되었다.

3) 교회의 갱신

당시 영국 국교회는 메도디스트 영성운동을 핍박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보고서 자신들의 교회 갱신의 계기로 삼았다. 웨슬리의 영성운동은 새로운 교단을 차리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국 교회 자체를 갱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당시 웨슬리는 메도디스트 영성운동을 통하여 하나의 이상적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세상에 보여주려는 목표를 실현하였다.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 갱신 운동을 구체적으로 펼쳐야 한다.

4) 민족의 개혁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운동의 위대한 목표는 ‘민족의 개혁’ (reform of the nation)이다. 웨슬리와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영국인의 생활 습관과 도덕생활을 개혁하였다. (reformation of manners and morals) 즉 웨슬리의 영성운동은 영국인의 성품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당시 영국인

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목자가 되어 그들의 성품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타락한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사회의 성화와 민족의 개혁은 하나님이 메도디스트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이었다. 민족을 개혁하고 사회를 성화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영성의 진정한 열매이다.

5)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

1744년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웨슬리는 메토디즘(감리교)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4. 결론과 제안

1) 세속 속의 성자들; 신실한 사람들

감리교 역사가들은 옥스퍼드 신성회(holy club)을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 운동, 즉 세속 속의 수도원 운동이었다고 평한다. 신성회에 뒤이어 나온 메도디스트 신도회는 말 그대로 세속 속의 수도원이었으며, 메도디스트 영성운동은 세속 속의 수도원 생활 운동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규칙이 수도원 생활 규칙과 같았으며, 그들의 삶이 수도원 영성 생활을 꼭 닮았기 때문이다. 영성생활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이 아니다. 엄격한 규칙과 규칙에 따르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메도디스트들은 웨슬리가 가르쳐준 영성의 규칙을 지키고 훈련하여 세속 속의 수도원 영성생활을 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마음과 삶의 성화를 이루고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였다. 영성생활은 규칙이 가장 중요하고 규칙에 따르는 지속적 실천이 그리스도같이 됨의 축복을 얻는 것이다. 한국에서 감리교회가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성서적인 성결을 온 인류에게 전파하려면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도디스트 수도원 영성훈련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 웨슬리와 메도디스트들은 수도원 밖에서, 즉 세상에서 수도원 영성의 규칙에 따라서 사는 세속 속의 성자들이었던 것이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속 생활에서 한 결 같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메도디스트 영성은 세속 속의 수도원 생활이다.

2) 다양한 수도회 창설과 메도디스트 수도원 설립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산속에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마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을까? 대체로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개인의 삶에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위해 집중 기도하

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든지 개인이나 가족이 중병이 걸려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다. 또는 자기 교회의 부흥이나 건축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 이유다. 대부분 현존하는 개 교회의 세력파시나 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구로 이용되고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기도원은 기복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기도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의 교회는 어디서나 참된 기독교 영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흐리고 어두운 데 빠져버린 이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을 찾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진정한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일찍이 사무엘 웨슬리(존 웨슬리의 부친)은 영국교회가 종교개혁을 한답시고 수도원을 다 없애버린 실수를 개탄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수도원에서 참된 경건을 훈련하였는데, 우리 시대의 자손들은 어디서 그런 경건을 배워야 한단 말인가?”라고 탄식한 바 있다. 사무엘 목사의 개탄이 있는 지 얼마 후 영국에서는 수도원 복구운동이 진행되었고, 존 헨리 뉴만이 ‘옥스포드 운동’을 통하여 카톨릭 복구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영국에서 수도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다양한 영성의 전통을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수도회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이다. 종교개혁 이전에 존재했었던 전통적인 수도회들, 즉 도미니크 수도회, 프라니시스 수도회, 예수회 수도회, 시스터시안 수도회 등 수도회들과 또 새로운 종류의 수도회들이 일어나 영국교회의 영성생활의 개혁이 일어났다.

수도원 영성생활은 반드시 수도원 건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원 건물이 없이도 세상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모상,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본받는 거룩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하고 평생토록 실천하는 신자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수도회인 것이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그리고 웨슬리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도원 영성훈련은 꼭 필요하다. 웨슬리는 그것을 세속 속에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 실천하였다. 우리도 진정한 기독교 영성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체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세속 속의 수도원 운동이다. 우리도 진정한 기독교 영성훈련과 웨슬리 전통의 영성생활을 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사에 나타났던 다양한 전통의 수도회들을 본받고 웨슬리와 초기 메도디스트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각종 수도회가 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웨슬리 수도회’, ‘메도디스트 수도회’, ‘이용도 수도회’, ‘아펜젤러 수도회’, ‘하디 수도회’, ‘유관순 수도회’, ‘전덕기 수도회’, ‘최용신 수도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회 운동을 권장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메도디스트 수도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3) 신학대학의 수도원 공동체화

언제부터인가 거의 모든 개신교의 신학대학은 영성훈련보다는 신학 지식에 쌓는 지적 훈련에

중점을 두어왔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장 심하다. 그 결과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낳았다. 한국사회에서 목회자의 윤리는 그 수준이 밑바닥을 친다. 한국개신교회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치욕스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을 이루었지만 한국교회의 윤리는 사회보다도 못한 면이 많이 발견된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서부터 영성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학대학 학생들은 지식훈련에 치중하면서 영성훈련에 무지하고 소홀히 하고 회피하는 실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목회자의 영성 즉 성품이나 인격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치열한 세속적 생존경쟁과 같은 목회현장에 몸을 던지고 마는 것이다. 겸비, 순종, 진실, 헌신, 희생, 청빈, 사랑의 실천, 성결, 성화, 이런 가치보다는 각박한 목회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고뇌와 경쟁에 휘말리는 것이다. 오늘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강단의 설교에서 비판하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 현실주의,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 명예주의, 권력주의, 인기주의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행복하지도 못하다.

일찍이 웨슬리는 목회자가 타락한 시대에 교회 개혁을 이루었다. 그것은 곧 목회자 개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메도디스트 목회자들을 수도원 영성생활을 하도록 훈련하였다. 즉 그는 모든 메도디스트 목회자들이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에 일치하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성자(saint)가 되도록 훈련하였던 것이다. 그는 메도디스트 목회자들이 실천할 수도원 생활과 같은 영성생활의 규칙을 만들어 경건의 행위와 목회적 실천과 자비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초기 메도디스트 목회자들은 수도원 영성생활을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영국사회에서 가장 신뢰할만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미 세속주의에 깊이 오염된 오늘의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거룩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가 능하게 여겨지는 길은 감리교 목회자 양성 신학대학을 수도원 공동체로 만들어 모든 목회 후보생들을 수도원 같은 영성훈련을 받게 하여 일생 성직자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의 규칙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 *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건전한 영성운동을 펼친 교회들의 수도원 영성을 연구한다.
- * 현재 카톨릭교회와 성공회의 수도원 영성생활을 연구한다.
- * 감리교회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도회들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 * 연회나 지방 단위로 메도디스트 수도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 * 한국 감리교인의 영성생활 규칙이 제정되고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감리교 목회자 양성 신학대학을 수도원 공동체로 만들어 지적 훈련과 함께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신학대학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 감리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수도원 영성훈련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웨슬리의 경건생활을 위한 자기 성찰

◆ 웨슬리의 경건생활 패턴

- 1) 항상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십시오.
- 2) 잠에서 깨어나면 우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첫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첫 열매를 주님에게 드리십시오.
- 3) 세면하고 옷을 입은 후에 30분 정도 아침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 4) 옷을 입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옷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됩니다.
- 5) 아침에는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정독하고, 읽은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 6) 성경 읽기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실행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 순서를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 7) 오후에는 일을 하거나 방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라도 기도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 8) 밤에는 자기 성찰의 시간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하는 질문

- 1)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 2) 어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 3)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것을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 매일 저녁 자신에게 하는 질문

- 1) 아침에 드리는 개인기도,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에 어느 정도의 진심과 열정으로 참여했는가?
- 2)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 3) 아침에 하려고 생각했던 덕목은 행했는가? 계획했던 일 중에 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 4)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 5) 다른 이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 6) 내가 방문을 받고 다른 이를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욱 풍성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 7) 상대방에게 꼭 도움이 될 때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불필요한 지적을 하지는 않았는가?
- 8)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말로나 행동으로 슬프게 한 일은 없는가?
- 9) 오늘 하루 행한 모든 행동으로 덕을 쌓고, 더욱 덕스러운 삶을 위하여 발전적인 삶을 살았는가?

※참고: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권희순 著, 도서출판 KMC)

웨슬리의 한 주일을 위한 기도문

주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도

아침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당신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아침 당신 앞에 겸허한 심령으로 사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신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의 근심에서, 세상의 산란함과 복잡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을 나의 특권과 행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당신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이 주님의 날이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닿을 수 있고, 하늘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 첫날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내려 주셨던 성령님이시여, 부족한 종인 저에게도 오셔서 오늘 주님의 날, 성령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성령이시여, 이 거룩한 날 당신이 명하신 의무들을 행할 때, 나를 자제시키고 도우셔서 나의 방황하는 생각들을 당신께로 모으게 하시며, 파도처럼 일렁이는 나의 감정들을 고요하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나의 무관심과 냉담함이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기도와 찬양에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확고한 결단이 있게 하시며, 그 결단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 당신의 제단에 나아갈 때에, 나의 심령에 겸손과 믿음, 소망과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 경건하게 기억할 수 있는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이 온전한 사랑의 수고와 기도와 찬양과 묵상 속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바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나라의 영광 안에서 당신을 영원히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녁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손 안에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기쁨을 향유하게 하옵소서. 당신 보시기에 좋은 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오직 온 맘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세상으로 향한 열심에서 구원하시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역에 사용하소서. 세상을 향한 나의 열심은 당신의 사역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훌어 놓으며, 내 우편에 계시는 당신과 늘 함께 있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소망을 깨뜨려 버립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좁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에 대한 열심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의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음을 압니다. 빈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일을 행하게 가르쳐 주시어 이 모든 일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며, 당신 또한 이 모든 일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나의 영혼은 변화무쌍한 본성으로부터 안정되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세상 것에 무관심할 수 있으며, 오직 당신 보시기에 좋은 것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서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시며, 모든 일에서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밤에도 나를 열납하시어 당신의 보호 아래 앉히소서. 나의 보잘것없는 섬김을 받아 주시며, 이러한 부족한 섬김과, 거룩한 의무를 행하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죄와 고통과 죽음을 정복하고,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모두 구원시킨 후 당신의 나라를 속히 임하게 하는 것이 당신의 선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사랑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월

이웃 사랑에 대한 기도

아침

오, 모든 좋은 은사들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무가치한 종인 제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모든 관대함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택하시며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시는 당신은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인자와 당신을 영원히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형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과 자녀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의 모든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징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보다 더한 당신의 사랑을 속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섬길 수 없는 모든 나의

형제자매들을 기도로 돕게 하소서. 이웃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열심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궁핍한 자들을 돕고, 억눌린 자들을 보호하며,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며, 선한 자들을 권고하고, 악한 이들을 꾸짖게 하소서. 이웃의 실패를 나의 실패처럼 생각하고, 사랑이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지 않게 하시며,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행케 하소서.

오! 은혜의 구세주여,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하찮은 것인 양 버리셨습니다. 오!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 나도 동료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쉽게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은 모두 당신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형언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그들을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복음의 광채를 더하며, 내 힘껏 선을 행함으로써 마침내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감미로움에 빠져서, 죽으시고 영원히 왕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저녁

가장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 당신의 신성한 위엄 앞에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부끄러움으로 당신의 가장 엄한 벌을 받기에 합당한 나의 수천 가지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하늘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며,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불완전한 회개를 받으시며, 당신의 성령을 나의 심령에 보내 주셔서 내가 다시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신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로 향하는 당신의 친절하고 끝없이 인내하는 사랑처럼,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도 끝없이 인내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건강과 안전, 평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심을 갖게 하소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며 평안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평화와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쉽게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갚게 하소서. 나를 당신 자신처럼 만드셔서 진실로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선하고, 온순하며, 온유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내 안에 영혼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을 일으키소서. 애정과 끊임없는 충고, 권고, 질책으로 악한 자를 교화시키며, 그들을 당신의 사랑에까지 성장시키게 하소서.

고통 받는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의 궁핍을 제하시며,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로운 뜻에 기쁘게 복종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 세상의 수고에서 자유하여 이미 안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이끄소서. 오! 성부와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제와 항상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겸손을 구하는 기도

아침

오! 영원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나에게 부어 주신 영적, 육적 은혜에 대해 당신께 겸손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 만복의 주님, 당신의 명령,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소서.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의 구세주시여, 당신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만을 나와 더불어 시행하소서. 나에게 당신 속에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나에게 겸손의 영을 부으소서. 내 영혼의 구석구석을 겸손으로 채우시고, 겸손이 나의 마음을 늘 다스리게 하셔서 나의 모든 성품이 겸손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모든 생각, 소망, 계획 역시 겸손의 진정한 열매가 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높고 일어날 때,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하게 하셔서, 내가 보기에든 항상 가난하고, 보잘것없으며, 비천하고, 형편없는 자로 보이게 하소서. 나는 지혜도 없고 거룩한 지식도 없는 자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나는 하찮은 존재이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를 붙잡히 여기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을 우리에게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당신의 얼굴로 우리의 황폐함을 비추소서. 통치자들에게는 신중한 열정을, 이방인들과 백성에게는 겸손한 충성심을 채우소서.

고통 받는 모든 아들딸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들과 나의 친구들, 그들의 모든 친지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나의 적대자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게 하시어, 당신 안에 지금 잠들어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복 되신 예수님의 공로와 중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모든 영예와 권능과 지혜와 송축을” 모든 피조물에게 이제와 항상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저녁

오! 주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심령으로 오늘 저녁 기도를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붙잡히 여기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당신의 모범과 교훈으로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내 생활 중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사가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르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내 안에 교만을 근절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나는 수치와 멸시, 고통과 징계에만 합당한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 외

에는 아무것도 찾지 않으며, 주장하지도 않게 하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당신만을 바라보며 생명길로만 가게 하소서.

인간들에게 경멸과 거절을 당하신 주여, 내가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사들에게 멸시당할 때, 동료들에게 조롱당하고, 아랫사람들에게 경멸적인 대우를 받을 때, 당신의 거룩한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행복한 일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용하게 하소서.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과 허영을 치유하시는 당신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영혼의 치료자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내려 주소서.

“침상에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잠에서 깨어날 때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소서.” 당신은 나를 과거의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이 밤도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수

금욕을 위한 기도

아침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당신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당신을 섬기고, 기쁘게 하도록 만드신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당신은 당신의 뺨을 때리게 양보하였고, 당신의 등을 채찍질하게 내놓으셨으며, 당신의 손과 발을 나무에 못 박게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당신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히 나의 주님을 넘어서겠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님을 닮는 것이 내 마음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소서. 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생명을 다해 당신은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나에게 당신을 본받아 걸을 수 있고, 당신의 발자국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매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셔서 고난도 참을 수 있게 하소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엄습하기 전에 경건을 훈련하게 하소서. 육체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을 훈련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려는 감각, 욕망, 열정을 부인하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당신의 피조물을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신 목적대로만 사용하게 하소서. 궁극적으로 당신 아닌 어떤 욕망에도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의 기쁨 아닌 모든 기쁨은 피하게 하소서;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도우소서. 오! 주님, 나의 감각과 욕망, 열정과 이성을 지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욕망을 단호하게 부인하게 하소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훈련시키셔서, 늙어서도 그것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녁

오! 하늘과 땅의 전능하신 주님이여, 나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수많은 죄와 참을 수 없는 악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죽지 않는다면,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나를 강건케 하셔서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육신을 멸하게 하시옵소서. 육에 속하는 모든 것 - 본성을 타락시키는 모든 일과 성품 - 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며 완전한 당신의 율법을 어긴 죄를 멸하소서. 나를 세상으로는 죽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 - 육체의 욕망, 안목의 욕심, 이 생의 자랑 - 으로는 죽게 하소서. 당신께 합당하지 않은 쾌락으로는 죽게 하소서. 나 자신의 뜻으로는 죽고, 오직 당신의 뜻으로만 살게 하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당신의 피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당신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이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마음으로 무장시키소서; 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소서. 더 이상 인간의 욕망으로 살게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가 당신의 사도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도우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오! 나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로하시며, 지금도 당신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거룩한 의무를 행하면서 범한 죄를 용서하소서.

오,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교회 안에서 영원히 영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아멘.

자기부정과 온유함을 위한 기도

아침

오!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 자신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을 허락하셔서, 모든 가능한 사랑과 순종을 당신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비천하고 불쌍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마소서;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당신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나를 멸시치 마소서. 당신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겸손한 심령으로 나의 모든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뜻만 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내 뜻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심으로 당신의 선하신 기쁨에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지고의 선이시며, 전능하신 지혜자시여,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당신의 뜻을 경외할 수 있게 가르치소서. 당신이 나의 왕이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나에게 주실 모든 것도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당신의 지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지혜의 열매를 당신께 바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는 당신께 나의 몸과 영혼, 물질과 명예, 나의 친구들과 나의 자유, 나의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당신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져 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사랑해 주소서. 내가 공격당할 때 나를 위해 싸워 주시고, 내가 해를 당할 때 상처를 싸매 주시며,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나를 도우소서. 이 생의 일들, 혹은 많은 걱정들이 당신에게서 오는 사랑을 소멸치 않게 하소서; 내가 세상을 좇지 않고,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소서.

저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주 작은 은총조차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나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내가 당신의 것이기를, 영원히 당신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성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완전함, 당신의 일, 당신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만 나의 이

성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 밖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하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나의 뜻을 바칩니다: 내 뜻을 품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도 그 것만을 원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그랬듯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원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기쁘게 고난 받게 하소서.

나의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 주소서; 나의 사랑, 나의 두려움, 나의 기쁨 모두를 받으소서;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하소서; 당신 보시기에 좋게 나를 고치소서.

나의 몸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몸으로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을 위해, 당신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 몸을 너무 사랑하지도, 너무 혹사하지도 않게 하소서;

당신께 나의 모든 세상 재물을 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해 그것들을 귀중히 여기며, 사용하게 하소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 속에 계시는 당신께 돌려드리게 하소서. 나의 주님, 당신께서 나의 손에서 그것들을 요구하실 때, 만족함으로 내어 놓게 하소서.

당신께 나의 신용과 명성을 드립니다: 그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고, 당신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당신께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분깃이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후로 내가 이 엄숙한 약속을 깨뜨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세상과 나를 둘러싼 친구나 관습을 따르고 싶어 할 때, 나의 모든 것인 나의 하나님이지여, 이렇게 말하게 하소서.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금

금욕을 위한 기도

아침

오!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신 중의 신이시고, 빛 가운데 빛이신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시며 그분 인격의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떨치고 죽음을 이기신 당신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 안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소서. 막달라 마

리아에게서 일곱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이여, 내 심령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당신이여, 나를 죄의 죽음에서 일으키소서.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내 영혼의 질병을 고치소서; 내 눈을 여시고, 일심으로 나의 고귀한 소명의 상급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모든 욕망에서 씻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 나아가게 하소서.

비참하게 멸시당하셨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멸시와 모욕과 박해를 받으셨던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자비를 베푸셔서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배반당하시고, 은전 몇 푼에 팔리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참람하게 고소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의 반대에도 견뎌내게 하소서. 부끄러움과 수치로 옷 입혀졌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영광을 좇지 않게 하소서.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셨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앞의 달려갈 길을 인내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골고다까지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며, 피로 온몸을 적시셨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 같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여, 나를 온전히 비우게 하셔서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나 역시 고통을 참으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라면, 피 흘리는 것까지도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저녁

오! 성부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단지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성자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같은 목적을 위해 내 안에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거룩과 은혜와 영광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당신께 불순종하여 당신을 진노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 고통 중에서 당신께 도움을 간구하는 나를 살피소서. 나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당신의 피조물로 여기소서. 나는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용서하시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용서는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의 죄인임을 생각할 때,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주된 임무를 행치 않으시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께 이 세상의 것들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기뻐하라, 네 죄가 사함 받았도다.” 더 이상 당신께 죄짓지 않게 하소서! 나의 양심이 나를 혹독하게 비난할 때조차도, 당신은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불에서 건져낸 막대기인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불완전한 회개를 받아 주시고,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더러움을 깨끗케 하시며, 나의 악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불안정함을 안정으로 이끄소서. 당신의 성령이 나를 영원히 살피시고, 당신이 항상 기뻐하시는 당신 아들의 공로와 고난과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토

감사의 기도

아침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천사와 인간의 아버지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보호자이십니다. 오늘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위엄에 바치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사랑으로 받아 주소서.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일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의 창조주인 당신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고요한 밤중조차도 당신의 영광 나타내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땅은 매일 땅의 성스러운 왕인 당신께 향기로운 향을 내뿜습니다. 당신은 땅을 언덕과 골짜기로 아름답게 치장시키셨고, 풀과 나무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골짜기는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왕, 영원하신 당신을 향해 그의 손을 높이 듭니다. 창수는 손뼉을 치며, 언덕들은 당신 앞에 함께 기뻐합니다. 열매를 맺은 계곡들은 즐거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먹이십니다: 이들은 당신을 섬기며, 당신은 그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안락함을 위하여 빛을 만드셨고, 밤이면 지구에 어둠을 드리우시어, 생물들이 안식을 취하게 하십니다. 천둥과 우박, 눈과 비, 바람과 폭우는 당신의 말씀을 행하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무생물도 생명의 주님이신 당신을 선포합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도 그들의 지혜로우신 창조자를 드러냅니다. 자연의 축제 속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침묵하기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가장 고귀한 피조물에게, 당신께 가장 고귀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을 내 안에 부으셔서 당신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당신은 나를 만드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행하게 도우시고, 신실하게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오! 주님, 나의 손의 행사를 번성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맡은 일을 번영케 하심으로, 내 이웃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 내 영혼의 구원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전능하시며, 인간을 향해 이적을 행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주님, 당신은 태초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하늘은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해와 달과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 아침과 저녁을 통해 당신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당신은 “흠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인간이 당신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당신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당신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모든 당신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가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능력도 당신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보상으로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의 능력을 경외하고, 당신의 선하심을 높이게 하소서. 나의 혀로 날마다 당신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당신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심을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에게 나를 보호하게 하시며, 나를 악인과 악한 영의 유혹에서 건지소서. 평안 중에 잠들게 하시며, 죄 중에 잠들게 마소서. 당신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로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영접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 성령 하나님, 영세무궁토록 모든 영광과 사랑을 받으옵소서. 아멘.

(웨슬리의 기도문을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참고 : Wesley's Works Vol. XI (1986, Thomas Jackson(ed.), pp. 203-259,

Hendrixson Publishers, INC, Peabody, MA)

감리교회의 세 가지 약속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영적각성 100주년의 해를 맞아 그 실천의 일환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을 향하여 세 가지 약속을 제정하였습니다.

일찍이 제26회 총회 감독회의에서는 ‘감리교회 영적각성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제27회 총회와 실행부위원회에서는 ‘목회자 윤리강령’과 ‘감리교인 생활수칙’, ‘사회규약’을 제정하여 2007년 국내외 11개 연회를 통해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영적각성운동이 회개와 생활의 변화를 통해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당시 조선사회를 변화 시켰듯이, 이제 우리 5,700교회, 150만 감리교인은 ‘세 가지 약속’과 실천을 통해 “신실한 사람들”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목회자윤리강령’은 8,500여명의 감리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고백하고 지키려는 성직자의 기본 윤리입니다. ‘감리교인생활지침’은 150만 감리교인의 영성생활과 생활윤리를 제시하였으며, ‘사회규약’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리교회의 대사회적 책임과 약속을 담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언약갱신의 전통과 성화의 신앙정신에 따라 늘 스스로를 개선하고 갱신해 왔습니다. 이제 세 가지 약속의 실천을 통해 나날이 새로워지고, 든든히 서 가며,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세가지 약속의 원문은 www.kmc.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윤리강령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들은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때에 우리 자신의 사역과 생활을 성찰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히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모든 성도 앞에 신실한 본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목회자 윤리강령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목회자로서 참된 믿음과 깊은 영성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
2.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위임받은 사역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한다.
3.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 먼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자랑스런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감리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신실하게 섬긴다.
5. 우리는 같은 소명을 받은 동역자로서 일체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동료 목회자들을 돕고 격려한다.
6.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청렴하고 검약한 삶을 살아 교회의 덕이 되도록 노력한다.
7.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요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위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헌신한다.

우리는 목회자 윤리강령을 마음속에 새겨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할 것이며 만약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리교회의 장정에 따라 어떠한 규제나 견책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사회규약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30년 제1회 총회 출범과 함께 사회신경을 제정하여 사회를 향한 기독교적 원리와 신앙 윤리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신학에 기초한 감리교회의 실천 규범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규약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전하는 '자연공동체' 를 위해 헌신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가정공동체' 를 위해 헌신한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고 섬기는 '복지공동체' 를 위해 헌신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정의와 평화 공동체' 를 위해 헌신한다.
5.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화해와 통일공동체' 를 위해 헌신한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미래공동체' 를 위해 헌신한다.
7.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 이 사회에서 '성화공동체' 를 이루는데 헌신한다.

영적각성운동 연회 및 지방 사례

■ 중부연회

1. 연회 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필요

중부연회에서는 2004년 12월, 29개 지방임원들이 함께 모여 영적각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협의는 감리교회의 정책에 대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연회에서는 영적각성운동의 역사적인 배경과 당위성을 담은 소책자를 2회 발행하여 공감대를 점차 넓혀 나갔다.

2. 연회는 중보기도의 구심점 역할

중부연회의 경우 영적대각성운동을 위하여 연회를 앞두고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공포하고 8주간 월요기도회를 주관하였다(참석 11,023명). 그리고 연회 후에도 8개 권역별로 7주간 연속 금요연합기도회를 전개하며 6개월간 영적각성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또한 두 차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하는 금식 기도회를 갖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였다(600명).

3. 운동력을 갖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중보기도회와 더불어 영적대각성운동위원회를 조직하고 행동계획을 작성하는 일을 병행하였다. 세 차례의 연구발표회와 여러 차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서를 작성 공포하여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지방별 실천 공모사업을 통하여 심화되도록 하였다.

4. 이론적인 토양과 방향 제시를 위하여 전문적인 학술대회

감리교단의 3개 신학대학교 11명 교수들과 계약을 맺고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약 10개월 후 ‘영적대각성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통하여 ‘각성, 갱신, 부흥’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학과 교회현장이 상호 교류하는 좋은 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5. 운동을 위한 기금 마련

사업 재정이 마련되지 않은 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영적각성운동에의 헌신적인 참여와 사업재정을 목적으로 감독초청 후원만찬을 개최하여 약 6,5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29개 지방 감리사와 평신도지도자 약 600명이 만찬에 초대되어 일인당 평균 10만 원 이상 헌금한 결과였다. 후원 만찬 행사는 연회 사업의 이해와 홍보에도 유익한 기회가 된다. 이 후원금은 영상 홍보물 제작, 실천계획서 제작, 학술대회, 하디선교사 원산-평양 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 중부연회 특별성회의 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6. 연회중심의 영적대각성 특별성회

29개 지방 평신도 약 22,000명이 문학야구장에 모여 회개와 중보, 축복과 헌신, 변화와 부흥, 영적각성 실천계획서 선포 시간 등 가슴 뭉클한 성회를 열었다. 월요일의 기적이었다. 농부들은 못자리를 뒤로하고, 어부들은 뱃일을 재껴 두고, 직장인들은 조퇴하면서 성회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성회를 통하여 사탄이 획책하는 분리와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교회의 일치를 소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열망하였던 것이다.

7. 지방조직을 통한 현장화

만약 희망 프로젝트가 지방단위에서 실천되는 신앙운동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의 흥행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개의 선교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본부의 정책들이 지방차원에서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희망 프로젝트가 구호와 선언의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차원에서의 실천을 유도할 전략적 계획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지방기준에 맞는 평가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희망프로젝트가 199개 지방 실천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 고양지방

1. 교회순회 기도회

권역별 7주간 연합기도회 이후 29개 지방별로 영적각성 연합기도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거의 1, 2회에 그치는 경우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비록 감리사와 임원들의 역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감리교회 현실은 연합 중보 기도회의 능력이 소진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방의 경우는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월1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중생과 성결한 생활을 갈망하는 교회 순회 영적각성 연합기도회를 실시하며 귀중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였다.

2. 영적각성 세미나

목회자, 장로 등이 함께하는 영적각성 신학세미나(3회)이다. 이는 감리교회의 영적유산을 확인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 모임을 통하여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한 실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수많은 토의가 진행되었다.

3. 실천계획서 작성

영적대각성운동 실천계획서 작성사업이다. 이는 감리교인들로 하여금 영적각성운동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일이다. 이 지방에서 작성된 실천계획서는 중부연회 영적각성 실천계획서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실천계획서를 지방 입교인 수대로 발간 배포하여 실천의 토대를 삼게 하였다.

4. 미자립교회 자립기금 마련

미자립교회 자립기금 마련 사업이다. 이는 미자립교회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아가 지방의 선교적인 역량을 구축하며 교회의 유대감을 굳건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에서는 이를 위하여 입교인당 5,000원 현금, 연합성회 특별현금, 후원 만찬, 기타 수익사업 등으로 2년간 약 9,200만원을 마련하여 세 교회에게 각각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 씩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왔다.

5. 영적각성 연합성회

지방회를 맞아 하디선교사 영적각성 100주년 기념 연합성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감리교 영적유산을 공유하고 영적 자부심을 갖기 위한 것이다.

6. 축제의 장 마련

지방순회 마라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는 목회자 자녀 장학금 마련, 지방 교회들의 사랑의 유대감 형성, 선교를 위한 영적권위 확립 등의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주일 오후 시간을 정하여 교회를 잇는 편안한 달리기 코스를 정하여 릴레이식으로 하되 마지막 코스는 많은 사람이 함께 달리기를 하여 축제의 장으로 마치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씨앗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로 열매 맺게 될 것이 분명하다. 희망 프로젝트 운동은 교회와 세상 속에 희망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선교운동이다. 그리고 복음전파와 교회부흥, 사회적 책임, 화해와 연합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감리교회의 선교적인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존 웨슬리 회심 269주년 예배자료집

발행인 : 신경하

편집인 : 희망프로젝트 실천본부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홈페이지 : www.kmc.or.kr

* 모든 자료는 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필자 /

머리글 : 신경하

1부_ 설교문 : 임정덕, 박용호, 김인환, 서길원

8일간 말씀 : 김도식 김영호 김철한 박종천 이규학 이덕주 이후정 하관철

2부_ 성경공부 : 최선순

성경통독 : 아현중앙교회, 이선균

회개문 : 영적각성운동 본부(비온드 1907)

웨슬리 영적독서운동 : 홍보출판국

3부_ 웨슬리영성 : 장단기발전위원회, 김진두

웨슬리 영성프로그램 : 권희순

세 가지 약속 : 성직위원회, 사회평신도국, 선교국

영적각성운동 실천 사례 : 중부연회/ 고양지방, 신기식